



참부모님로정 - 살로브라와

판타날중심한

김명순

참부모님로정 (살로브라와 판타날중심한 1996년8월9일~ 2001년8월. 김명순 작성)

1.1996년-

*8월9일- 참부모님, 미란다시에서 낚시정성 드리시면서 살로브라호텔을 구입하심(이호텔은 800여헥타르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손님들은 주로 낚시꾼들인 농장호텔로, 흐린물의 미란다강과 맑은물의 살로브라강이 만나는 곳이며 판타날의 입구에 위치해 있었다) 사진3



장



*8월11일- 참부모님께서 살로브라호텔에서 경배식후, 호텔책임자로 나(김명순)를 호텔사장으로 임명하시고, 남편 마으리시오 발지니는 VIP섭외 및 교육책임자로 세우심(사실 이때, 우리 부부

는 미나스 주책임자로 있는 중에, 8월13일에 잘딩에서 있을 응급차 기증식을 도우려 왔다가, 그날 호텔에서 경배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경배가 끝난후 참아버님께서는 바로 나의 건강을 물으셨고, 참어머님께서도 도움의 말씀을 주신 터위에, 공해가 없는 곳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배려하신 참사랑의 인사이동이었다)사진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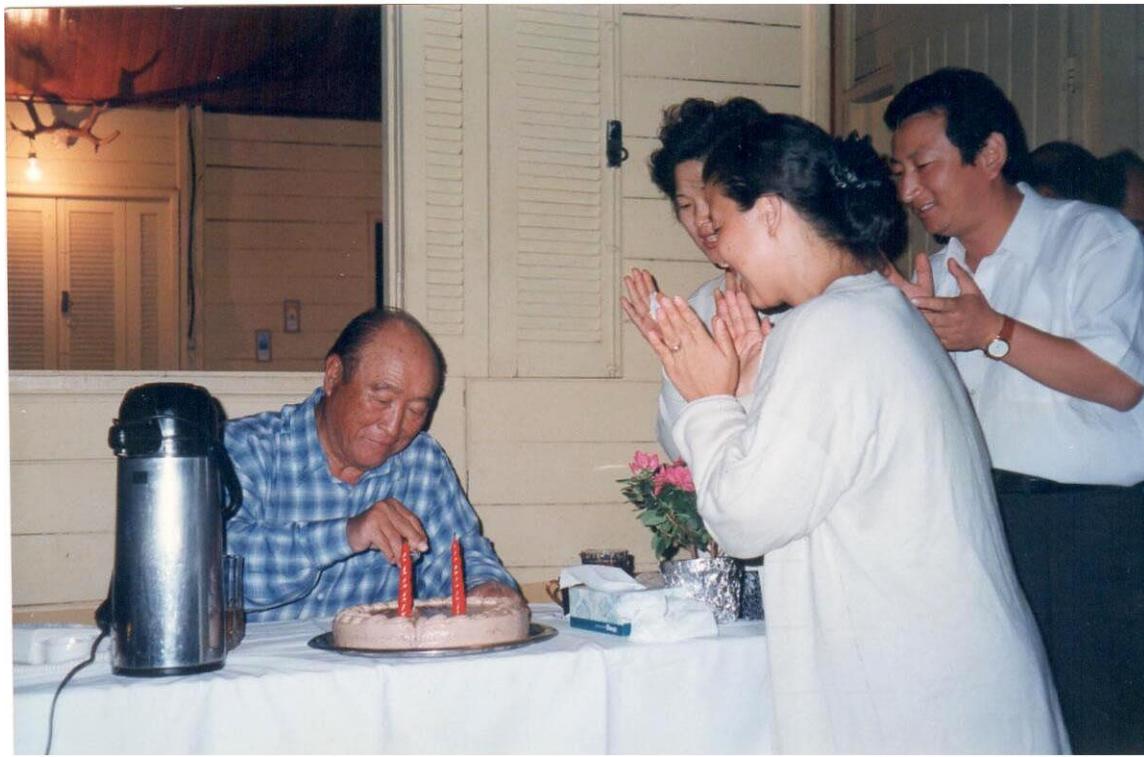
8월13~ 8월16일- 참부모님께서 13일에 잘딩에서 29대 응급차 기증식을 하신 후 다시 살로브라에서 16일까지 낚시 정성드리심(참부모님께서 잘딩으로 떠나신 후, 참부모님께서 숙박하셨던 살로브라호텔방에, 직원이 청소하기 위해 열어논 문앞에, 야생새인 세리에마 한쌍이 나타났다. 한마리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나머지 한마리는 문밖에서 다른 한마리가 방에서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둘이 같이 담장에 올라 크게 노래를 부르고는 숲으로 가버린 희기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본 여자직원은 두려움까지 느꼈으나, 나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경의감을 느끼면서, 참부모님께서 다시 호텔에 오셨을 때 이사건을 보고 드렸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 새가 참사랑이 그리워서 그방에 들어갔다' 라고 하셨다. 그순간 나는 '참사랑은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참아버님의 그 말씀을 고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훗날 호텔을 방문한 모든 식구들에게 간증을 했다. 이 기간엔 훈숙님께서 부모님과 동행하시었는데 흥진님의 사진이 있는 책을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호텔을 거느시곤 하셨다. 그리고 호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장인 나에게 '잘하실꺼에요'라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때의 훈숙님의 말씀은 훗날 호텔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흥진님께 간절히 부탁할 수 있었던 큰 동기가 되었다.).사진2장



*8월17일- 상파울로에 도착하시어 공항근처 Deville 호텔에서 머무시며 오후에는 Varig농장을 방문하시고, 저녁식사후에 알라스카로 떠나심.

*9월17일- 참어머님께서 9월10일에서 10월8일까지 세계 순회강연을 하시는 기간 중에, 아버님께서는 낚시정성을 드리고 계셨고, 특히, 이날은 아버님께서 살로브라호텔입구에 있는 아주 빈 소한 사무실 앞마당에서 스탭들과 함께, 새벽에 한국의 어머님의 강연을 전화기를 통해 청취하시고, 어머님을 기쁨으로 격려하셨다. 새벽 강바람에 케익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위해 쟁반으로 바람막이를 하고, 커피포트에 마이크를 걸어놓고 축하하는 아주 허술한 환경이었지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노래를 부르며 스탭들은 행복한 순간을 보냈다.-사진4장





*9월19일- 이날은 어머님께서 중남미순회를 시작하시기 위해 상파울로에 도착하시는 날이었다. 아버님께서는 살로브라에서 정성드리시다가, 상파울로로 가셔서 어머님을 만나시고 과를루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주무셨다.(상파울로로 떠나시기전에 살로브라에서, 아버님께서는 드시던 성찬을 놓고 특별행사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그때 오시는 어머님의 위치는 바로 '2차대전후에 세계적 여왕이, 메시아를 만나러 오는 입장의 어머니의 위치'라고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그날 참아버님을 위해 성찬을 준비한 고집사가 무슨 음식을 해야할지 몰라 너무나 걱정을 하

면서, 사장인 나에게 물어왔을 때, 그녀에게 ‘아버님을 가장 잘아시는 층모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했었다. 그래서인지, 참아버님께서는 상에 가득한 16가지의 성찬을 놓고 식사하신 후에, ‘정성들인 음식인데 다 먹지 못하니까, 건드려라도 줘야지’ 하시면서 젓가락으로 접시 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건드리셨다. 그런후 상을 치우지 못하게 하시며, 컵에 남겨진 물도 더 채우지 못하고 남겨진 그대로 놔두게 하시고는, 식구들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스탠과 식구직원 모두 모이니 신기하게도 16명이 되었고, 아버님께서는 숫자를 맞추신 걸 기뻐하시면서 한사람당 한접시의 성찬을 나누어 주시며 그 자리에서 모두 먹게 하셨다)-사진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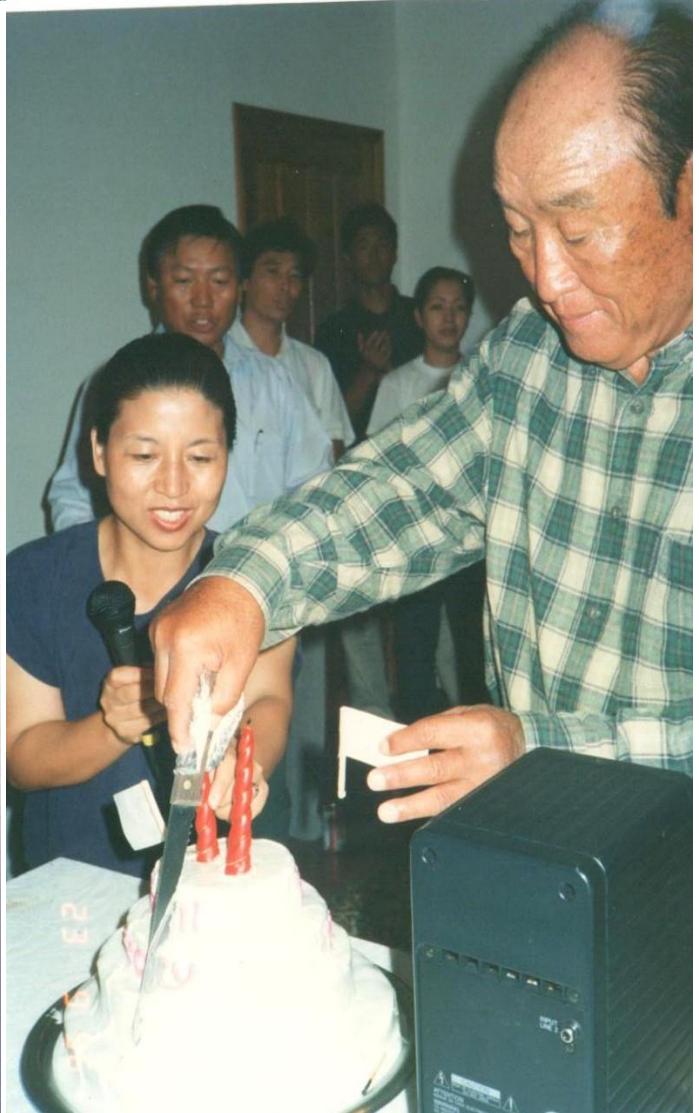
*9월20일- 어머님은 대회를 위해 상파울로에서 볼리비아로 떠나시고, 아버님은 다시 살로브라에 도착하시어 낚시정성 드리심.

*9월23일- 21일엔 칠레, 22일엔 파라구아이에서 대회를 마치신 참어머님은 다시 이날 상파울로로 오셔서 브라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시었고, 이 기간동안, 아버님께서는 살로브라에서 정성드리시며 매일 대회시간엔 전화로 말씀을 청취하시고, 대회가 끝나는 즉시, 어머님과 함께 전화로 축승회를 주관하심(볼리비아대회 때부터 조그맣지만 축하케익을 만들어 참아버님께서 커팅하시도록 했는데, 2틀째는 2단계 케익을, 3일째는 3단계 케익을 식구들이 만들었고, 남미 대회 4일째인 브라질때회 때에는 4단계 케익을 만들어 드리고, 일본식구인 모리상이 손으로 한국 태극기와 브라질국기를 조그맣게 그려서 케익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직원인 엘라니 식구는 브라질애국가를 불러드렸다. 참아버님께서는 식구들의 작은 정성도 모두 크게 받아주시며 기뻐하셨다).-사진9장











***9월24일-** 어머님은 알제트으로 가시고 아버님은 이날 상파울로를 거쳐 우루구아이로 가심.

***12월1일-** 참부모님, 살로브라를 들리신 뒤, 잘딩으로 가심. 이때 동행하셨던 대모님 일행에게 살로브라에 남아서 특별성별기도를 하고 잘딩으로 가도록 지시하심(참부모님께서 호텔을 구입하실 당시의 살로브라지역은 바로 살벌한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매년 금어기간 때는 살인사건이 번번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우리가 구입한 뒤에도 직원들끼리 칼부림을 하면서 싸우는, 한마디로, 지상의 지옥같은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대모님께서, 전 호텔주인이 살던, 5년동안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집에 성별하시려 들어가셨을 때,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악령들로 꽉차 있었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다. 그당시엔, 어떤 직원도 밤에 호텔 경비를 서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머리푼 여자귀신이 밤이면, 풀장가에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9월말 참아버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부터, 매일 밤12시면 호텔방에서 나와, 기도정성을 드리기 위해, 나는 혼자서, 부모님께서 쓰시던 다른 방으로 가면서, 밤하

늘의 별만을 바라보며, 무서움을 참고, 영계에 계신 흥진님과 대모님을 찾으며 협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때 남편은 깜뽀그란디에서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 없었다. 그동안의 그런 눈물어린 기도를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들어주시어, 이날(12월1일), 대모님일행을 실체로 살로 브라에 보내주신 것을 느끼고, 나는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당시, 동산위에 따로 떨어진 그 전주인의 집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공관으로 수리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12월10일- 참부모님께서 빨지도강에서 낚시하셨고, 동행하셨던 대모님일행과 스탭들도 참부모님과 함께 옷을 입은채 물속에도 들어갔고, 김홍태회장은 물속에서 아버님의 등을 밀어드리는 등, 그날은 모두들 천국생활을 체험했다. 그날 아버님께서 그 지역에 본궁을 지으실 계획을 말씀하심(훗날 아버님께서 그날을 회상하시며 '영계해방의 날'이었다고 말씀하심).-사진7장









*12월29일- 참부모님께서 효진님, 권진님부부, 선진님을 동행하고 상파울로에 도착하신 후, 30일과 31일에 상파울로본부에서 세계지도자회의를 주관하심.

2. 1997년-

*1월1일- 참부모님, 상파울로에서 0시 기도회 후, 새벽3시까지 말씀주심(연두표어: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백6십만쌍 축복완성). 오전 7시에는 참하나님의날 경배식이 있었음.

*2월5일- 참부모님, 살로브라에 도착하시어, 바란다의 타이루까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공관내부는 모실 준비가 완료된 걸 보시고 기뻐하시고는, 강에 나가시면서, 사장인 나에

게, '만일 그날 고기를 잡으시면 공관에서 주무시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그때 나는 '참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발 잡혀달라!' 고 물고기들에게 진심어린 부탁기도를 했다). 다행히 고기를 잡으셔서 공관에서 주무시고 가셨다.-사진3장





*2월8일~ 잘당에서, 참부모님이 리더들과 식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참사랑이 그리웠던 앵무새와 아라라새도 같이 참석을 했다.-사진5장







*3월1일- 참아버님, 잘딩수련소 건축설계에 대해 엄덕문, 김윤상원장과 의논하심.-사진2장





***3월2일-** 아버님께서 나(김명순)에게 간증을 시키셨다.- 사진1장



*3월7일- 잘당에서, 참부모님께서 6명의 리더들과(잘당대표한 팀에는 김윤상, 윤기병, 우종춘 그리고 살로브라 대표한 팀으로 가지꾸리, 후도시, 마으리시오) 원형으로 손을 잡고 특별기도 하심(총8명이 기도).-사진1장



*5월11일- 참부모님, 살로브라에 형진님과 함께 도착. 이날은 브라질에서 기념하는 ‘어머니날’이었다.-사진1장



*5월17일- 그동안 살로브라에서 낚시정성 드리시고 주변의 다른 농장도 체크하셨다. 저녁에는 기쁜 화동회 시간을 마련해주셨고 아버님은 어머님과 같이 모션을 취하시며 ‘할미꽃’ 노래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함께 그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금일봉을 하사하신 후, 깜뽀그란디 공항으로 가셨다(그당시는 차로 3시간을 타고 나가셔서 새벽 비행기를 타셔야 했기 때문에 항상 밤 12시쯤 호텔을 출발하시는 데, 운전하는 수행원이 피곤하기 때문에, 운전중에 출기 쉬운 위험한 순간 순간들이었다. 그시간엔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엔 다른 차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사진14장













그당시엔, 아버님께서 호텔쪽에서 배를 타시면 3시간 정도 걸리는 살로브라강 상류까지 가셔서 낚시를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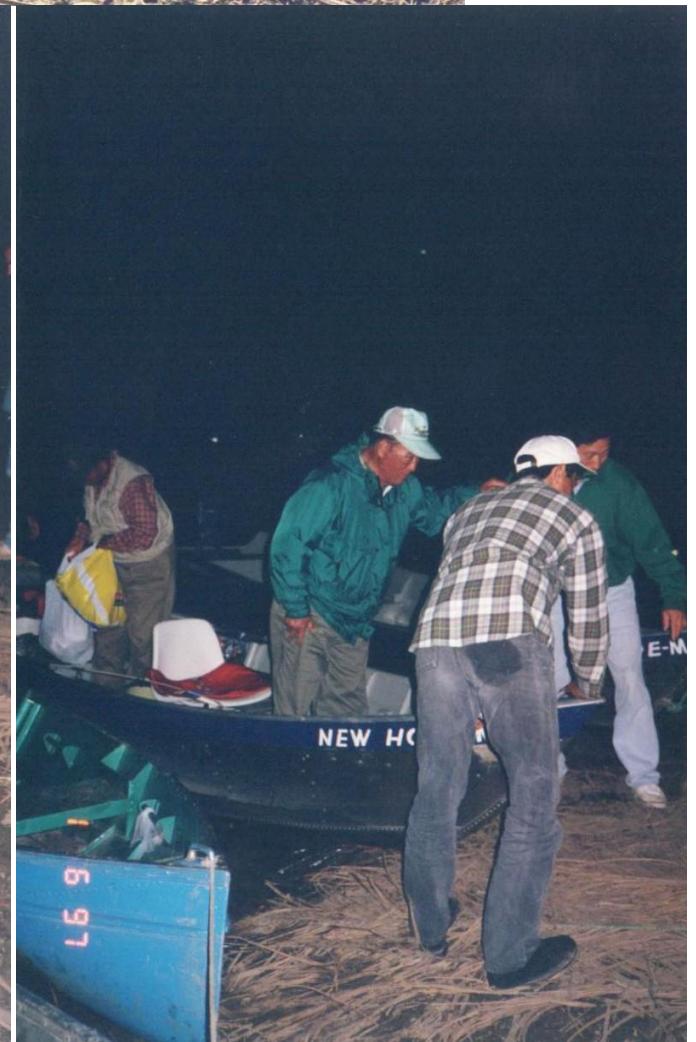
어느날은, 수행원들을 상류에 가서 대기하도록 하시고 밤낚시를 하시려고 계획하시었다. 그리고는 차로 남의 농장을 경유해서 수행원들이 기다리는 배를 만나려고 김윤상원장님과 단둘이서 나가셨다.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우리부부는 차로 가셨다는 그농장에 가보니, 농장문은 닫혀있었다. 아버님께서 그 농장에 들어가시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만해도, 그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 아버님의 신변이 위험했었다. 아버지차를 찾아 여러농장을 둘러보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호텔로 돌아온 우리부부는, 밤낚시를 하지 못하시게 되어 안타가워 하시면서 호텔로 돌아오신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 다른 배를 보내, 상류에서 기다리던 수행원들에게 아버님께서 못가시게 된 상황을 알렸다. 그런 상황에서 위험한 뱃길을 수행원들이 호텔쪽으로 내려오다가, 아버님낚시도 구를 실은 배가 뒤집히는 상황을 당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배에 있던 몇몇 낚시도 구는 물속에 잠긴채 건지지 못했다. 위험한 길을 내려올 수행원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공관홀에서 아무 말씀않으신 채 기다리시고 계셨다. 옆에서 혼자 지켜보던 나는, 너무나 심각한 분위기로 가슴이 조여오기 때문에 더 이상 그자리에 있을 수 없어 ‘아버지! 저는 강가에 가서 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강가로 내려갔다. 외로운 아버지를 혼자 공관에 계시게 한, 그렇게 철이 없었던 나였다. 그렇지만 강에 내려가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가시고자 했던 곳에 가실 수 있도록, 언젠가는, 꼭 해드리겠다’는 결심을 했다.

***5월20일-** 일본식구들은 참부모님의 명령으로 참부모님께서 중심적으로 섭리를 펼치시는 곳을 관광단의 이름으로 방문하였고 살로브라에선 새벽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대지를 향해 ‘하나님과 참부모님 만세’를 희망차게 외쳤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살로브라 섭리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갖었다. –사진2장



***5월30일-** 참부모님, 미국에서 다시 살로브라에 오심. 이때, 아버님께서 이전에 밤낚시를 원하셨던 상류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실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남편 마으리시오는 인지아나농장의 관리자와 미리 타협을 보았었다(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어두운 밤에 밀림속을 배로 내려가시기 위험하니까, 그농장에서 배를 타시고 내리시게 해달라는 부탁). 배운전사는 미리 배를 호텔쪽에서 출발하고 아버님은 한시간정도 차로 가셔서, 배를 인지아나농장에서 탄다. 그러면 배를 타시는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고기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농장은 수백마리의 멧돼지를 방목하고 있었고, 어두워지면 강근처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일찍 농장문

을 닫는다. 아버님께서 배를 타시면 일단 차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가 오후에 다시 모시러 간다. 그리고 배는 배운전수가 혼자서 호텔로 갔다놓는다-사진4장





***6월2일-** 하루정도만 이용할 걸로 생각하고 허락한 인지아나농장의 관리인은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버님께서는 계속 그곳을 이용하시고, 매일 어두운 후에 야 배에서 내리시니까, 이날(6월2일) 오후엔, 그들은 아예 아버님을 모실 우리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농장에 들어가는 문을 예정시간보다 미리 잠구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부부는 차를 일단 농장 밖에 세워놓고, 6 KM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농장관리자를 만났다. 아버님을 차로 모셔야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지배인이 열쇠를 갖고 나갔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 아버님은 이상황을 모르시고 어두운 후에야 강가에 배를 대실 것이므로 그들의 농장 트럭을 이용해서 아버님을 우리차가 있는 농장입구의 문까지 모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강가에 도착하신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남의 차를 타시기전에, 나를 먼저 운전수옆에 타도록 하시고는, 나의 오른쪽에 아버님께서 타셨다. 그리고는 호텔에 도착하셔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밑의 호텔에서(호텔에서 공관까지는 3km 정도의 거리가 있었음), 앞으로 살로브라수련소를 지을 장소를 직접 체크하시었다(아버님께서는 그때, 40일수련을 20일은 잘딩에서, 20일은 살로브라에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었다)-**사진5장**





*6월3일- 살로브라를 출발하시어 깜뽀그란디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일본식구관광객들을 만나 시자, 비행기를 타실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식구들에게 말씀해주셨다. 그런뒤 비행기타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도 급히 화장실을 들리셔야 했다. 그만큼 화장실가시는 것도 참고 일본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아버지였다-사진2장



*6월19일~ 7월3일까지의 2주기간은 참가정3대가(참부모님양위분, 영진님, 형진님, 신원님)함께 살로브라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정성을 드린 기간이었다. 이때는, 아버님께서 일랴농장근처에서 배를 타셨다(인지아나농장쪽은 더이상 허락이 안되었음). 그 농장쪽에 배가 한시간전에

올라가 있으면, 아버님께서는 스텝들과 차로 여러 다른 농장을 거쳐서 기다리는 배를 타시고, 돌아오실 때도 같은 장소에서 배를 내리신 후, 차로 공관으로 돌아오신다. 어머님은 따로 원주 씨와 함께 다른 배를 타시고 낚시하셨다. 어머님과 원주씨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화장실문제였다. 가까운 곳에 농장이 없을 땐 강가의 숲속에서(뱀과 악어등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곳임) 자연화장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지역에선 지독한 땅벌에 물리면 생명까지 위험했다. 또 영진님, 형진님 그리고 신원님은 함께 다른 배를 타신다. 아버님께서는 이기간엔 주로 살로브라 강에서 빠꾸를 잡으셨고, 한 낚싯대에 두개의 미끼를 달아 한꺼번에 두마리의 빠꾸를 잡으시곤 하셨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잘당에서 많이 잡으신 도라도(물고기이름)는 ‘돌아간다, 즉 복귀’라고 섭리적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살로브라에선 빠꾸를 ‘박고,라고 발음하시며 ‘중심을 박는, 즉 중심을 세우는 뜻’이라고 설명하셨다(나는 그때의 섭리를 일명 ‘빠꾸섭리’로 식구들에게 간증했다). 그리고 살로브라는 ‘살려보라’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는 ‘대통령 한사람, 한사람을 낚는 심정으로 빠꾸를 잡으신다’고 하시며, 심각하게 정성을 드리셨다. 살로브라의 빠꾸는 강가에 있는 나무열매(figo나무)를 잘 먹기 때문에 열매를 발견하시면, 배에 탄 채로 위험스럽게, 손수 나무에서 열매를 따시기도 하셨다. 항상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했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미리 준비가 안될 때가 있었다. 그 상황을 아버님께서는 ‘전쟁에 총을 갖고 나가면서, 총알이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안타까워 하셨다. 아버님께서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한, 전쟁을 치루고 계심을 말씀하셨다. 위험한 정글속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게 해서 복귀섭리를 단축시키시려는 모험을 매일 하셨고, 새벽엔 더 일찍 나가시고 밤엔 더 늦게 돌아오셨다. 어느날은 아버님께서, 보통때보다 더 일찍 나가시는 계획을 세우시고는, 배를 타실 때 시간을 체크하셨다. 그때 ‘1분 늦었잖아!’ 하시며 수행원들을 야단을 치시고는 ‘빨리가자’고 배운전수 빠울로(그때는 식구가 아니었음)를 재촉하셨다. 김윤상원장은 항상 아버님을 근처에서 모시는 사명을 하였다. 언제 아버님께서 더 일찍 나가실지 몰라, 그리고 경비를 서는 의미에서도, 김윤상원장은 아예 공관앞의 차안에서 주무시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호텔로 목욕하러 내려가신 원장님께서 너무 피곤하여 그만 호텔침대에서 잠에 떨어지셨고, 그날따라 아버님께서 한밤중에 나오셔서 김원장이 차안에 안 계신것을 확인하셨다. 아침에 아버님께서는 김원장을 야단치시고 아버님의 신변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말씀하시면서, 자녀분들의 신변도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잘해야함을 강조하셨다. 아버님께서는 섭리적 전쟁을 치루시고 계셨다. 그래서 매일 같이 복귀섭리를 단축시키시기 위하여 시간을 다투시는 일정을 보내셨다. 살로브라 참부모님 공관 입구의 문까지 합하여, 8개의 대문을 통과해서 강가에 도착하는데, 여러 남의 농장을 통과해야 하므로, 문을 열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닫고 가야하는 그 지역의 농장규율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님차가 쉬지않고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부부는 부모님 차 앞에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뛰어 내려, 아버님차가 도착하기 조금전에, 문을 열어놓고는, 또 빨리 차에 올라 다음문을 열기 위해 달려야 했다. 그리고 아버님차가 통과 한 뒤에 또 다른 차를 준비시켜 문을 닫도록 하는 작전을 쓰기까지 했다.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한다. 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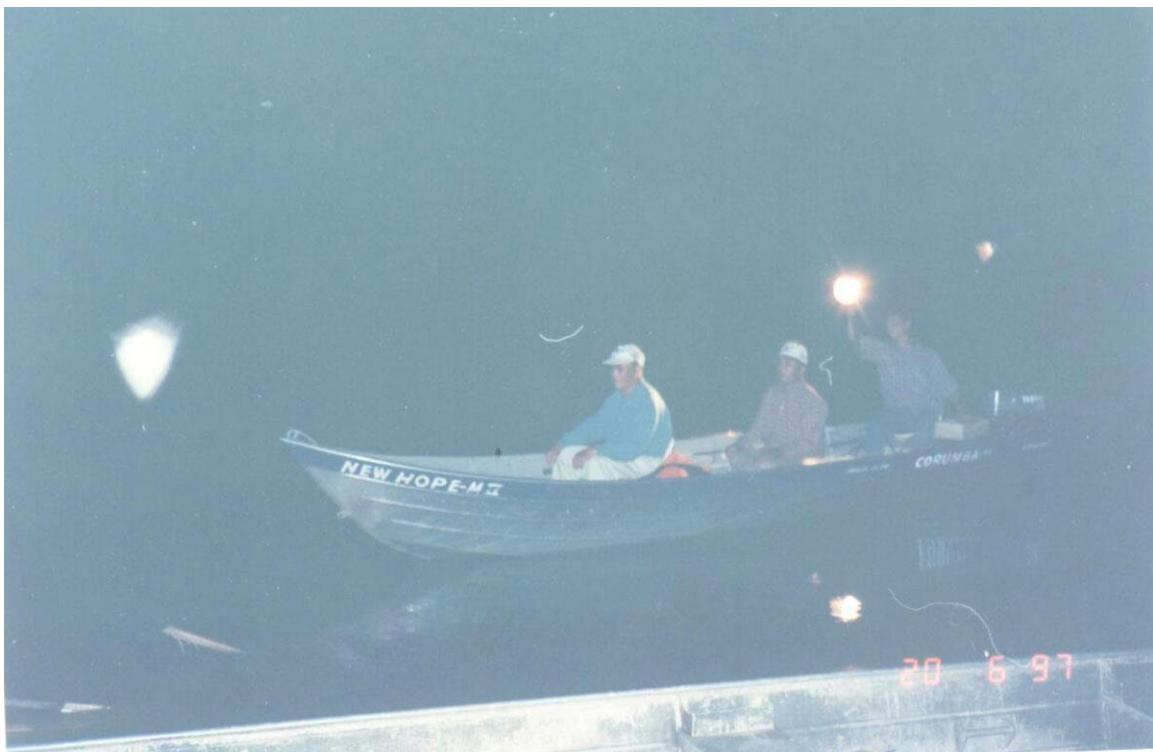
농장의 문은 너무 오래동안 열어놓으면 주인이 다른 소들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리도록 해드리는 내적의미를 부여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의 바쁜 상황을 나(김명순)는 '008 작전'이라고 식구들에게 간증했다. 8개의 문을 통과해야하기도 했지만, 세상의 '007작전' 이상의 작전으로 참부모님을 모셔야했기 때문이다. 아버님께서는 '훗날 말씀하시길' 참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다. 낚시를 끝내시고 복귀설리의 길을 상징하듯, 급한 경사가 반복되는 위험한 강인데, 그길을 어두운 밤에 빠른 속도로 내려 오시면서 '오늘은 몇분단축했다'고 하시며 매일 체크를 하셨다. 수행원들 배는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내려와 강가에 대기하고 있고, 아버님 배만 제일 늦게 어둔 길을 내려온다. 아버님 배가 도착하는 보트소리를 기다리며, 강가에서 기다릴 때는, 모기가 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직 아버님의 신변안전만을 위해 흥진님께 간구하며 마음조리며 기다렸다. 밀림지대라 큰칼로 나뭇가지를 자르면서 길을 열어 통과하는 강길이었기에, 커브를 잘못틀면 배가 뒤집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린 뾰족한 나뭇가지에 찔리면 생명이 위험한 강길이었다. 그 지역주민들도 감히 생각 못하는 모험을 아버님은 매일 단행하셨다. 그런데 아버님 배를 운전했던 빠울로청년은 참아버님께서 하자는 대로 모험을 하는, 그 지역에서도 소문난 겁없는 청년이었다. 아버님께서는 그 청년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고 아버님식사도 나누어 주셨다. 그런 아버지를 모시면서, 망나니로 그 지역에서 소문난 그가 점점 참아버님의 사랑에 녹아나기 시작했다. 그 청년이 하루는, 정글속에서 '레버런 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게 총을 구해 달라고 사장인 나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총을 구해주는 대신 나는 '위험을 느낄 때는 무조건 영계에 있는 레버런 문의 아들인 흥진님께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면서, 뜻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청년에게 얘기했다. 그러나 아버님은, 어려운 싸움을하시는 중에서도, 식구건 아니건 상관없이, 똑같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다 (훗날 아버님께서 그 청년에게 특별축복도 해주셨다). 살로브라의 6월은 겨울이라, 비가 오면 아주 추었다. 비가 오는 어느날, 아버지께서 우비를 안갖고 가신 것을 알고, 우리 부부는 다른 배로 직원 배운전수와 함께, 우비와 작은 커피포트에 따뜻한 커피를 마련하여, 아버님께 드리려고 배를 타고 갔다. 위험한 길을 만날 때마다,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모진 추위를 느낄 때마다, 아버님께서 비를 맞으시고 계신 것을 생각하고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3시간 걸려 강을 올라갔다. 그런데, 아버님께 우비를 드렸을 때 '이미 속옷까지 다 젖었으니 도로 갖고 내려가라'고 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에 죄송함을 금할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눈물을 감추고 '아버지, 커피를 가져왔으니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같이 나누어 먹자!'라고 하셨다. 작은 커피보트였기 때문에 아버님 배의 3인(아버지, 김윤상원장, 배운전수 빠울로)과 우리 배의 3인(우리부부, 배운전수 마링뇨)이 함께 마시기에는 너무 양이 적었다. 그래서 '커피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버님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는 '아니야,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6명이 커피를 똑같이 나누어 마셨다.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삶은 사랑 그 자체였다. 그리고 어느날은, 강에서 밤에 돌아오시는 길에, 배가 고장나서 위험한 정글속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한 지역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의 농장까지 데려다 주시고 오느라고, 목숨을 걸고 내려오신 살로브라강을 다시 올라 갔다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내려오신 날도 있었다. 그날 스탠인 우리들은 그 사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마음만 졸이고 있었다(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배 운전사도 그 시간에 강을 올라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님배의 보트소리가 들릴 때까지 마음졸이며, 어둡고 조용한 강가에서 하늘의 별들만을 바라보며, 흥진님과 대모님 그리고 천사들을 부르며, 강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때의 심정은 하늘만이 아실 일이었다. 그날의 사건은 참아버님께서, 메시아로써, 인류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참사랑을 실천하신 또 하나의 조건을 세우신 것이었다. 이런 조건하에 아버님께서는 6월29일을 '복귀설리의 마지막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셨다. 6월21일엔 영진님의 19세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다. 그리고 7월1일, 제7회 '칠일절'을 살로브라에서 기념하셨다(이때 3일전에야 살로브라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신다고 발표하셨기에,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시간을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고 상파울로에서 대기했다). 참부모님을 모시고 기념식을 갖기엔 너무나 장소가 비좁고 부족하여, 케익과 과일만으로 차린 조그만 상차림이었으나, 참부모님은 아주 기쁘게 그날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렸다. 그리고 계속 낚시 정성을 드리셨고, 특히 상파울로로 떠나시기 전, 7월 3일엔 캄캄한 새벽에 강에 나가셨다가 어두워서야 들어오는 강행군을 하셨다. 이기간 동안 아버님께서는 36마리의 고기를 낚으셨다(이때의 정성은 12번째의 축복의 관문인 3백6십만쌍 축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신 기간이었다)-사진18장























*7월4일- 새벽에 깜뽀그란디에서 비행기로 출발하신 부모님 일행은 상파울로에 도착하시어, 오후에 먼저 5층에서 200명의 VIP들과 '구국세계평화통일기업인연합'을 창설하시고 마르코폴로씨(2012년 현재 상파울로 축구협회 회장)를 회장으로 임명하시는 만찬을 여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날 밤엔 대성전에서 5백명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만찬과 함께 밤12시30분 까지 말씀을 주셨다-사진4장





***7월5일-** 부모님께서 상파울로협회 대성전에서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전세계에서 모인 지도자들에겐 '7월15일까지 3백6십만쌍 축복(성주식)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신 후, 저녁에 미국으로 떠나셨다(지시하신 대로 7월15일 목표완료됨).

***7월30일-** 깜뽀그란디에서 살로브라로 오시기로 했던 예정을 바꾸어, 아버님께서는 잘딩으로 바로 가셨다. 그곳에서 관광온 일본식구들을 만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살로브라에서 기다리고 있던 식사담당팀(한순자사모님을 중심으로)은 잘딩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저녁 식사를 해드리려고 바로 잘딩으로 출발하여, 3시간이 걸려 새소망농장 강건너편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농장에 들어가려면 강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

었다.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소식이 오기를, 아버님은 이미 저녁식사를 하셨고, 말씀을 바로 끝내시고 살로브라로 다시 가신다고 했다. 그래서 강을 건느려고 준비했던 식사팀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대신에, 다시 차를 돌려, 3시간걸려 살로브라로 와서 아버님을 기다렸다. 그런데 곧 오신다던 아버지는 잘딩에서 밤12시가 넘어서야 말씀을 끝내시고, 차로 살로브라로 오시니, 31일 새벽3시가 넘었다. 새벽4시부터 어머님의 강연이 한국에서 시작됨으로 아버님께서는 쉬시지도 못하고 어머님의 강연을 전화로 들으시며 정성을 모으셨다. 그리고 아침식사후 강에 나가셨다. 그리고 저녁에 오셔선 또 말씀을 주시고 밤12시가 넘어야 방으로 들어가셨다. 밤을 정복하시려고 하나님처럼 거의 주무시지 않으셨다. 8월1일 새벽4시(한국시간 오후4시)에 호텔식당에서 한국에 계신 어머님의 강연을 듣고 축승회를 한뒤,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강에 가셔서 정성드리시고 밤늦게야 배를 대셨다. 8월9일에 있을 '천지부모 천주안식권' 선포식(칠팔절)을 놓고 어머님은 한국의 16개곳에서 집회를 갖으시고, 아버님은 지구의 반대쪽에서 밤낮없이 정성을 투입하셨다. 이기간에 아버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동안 들이신 정성의 조건을 한국과 연결시키시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8월2일에 살로브라를 떠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사진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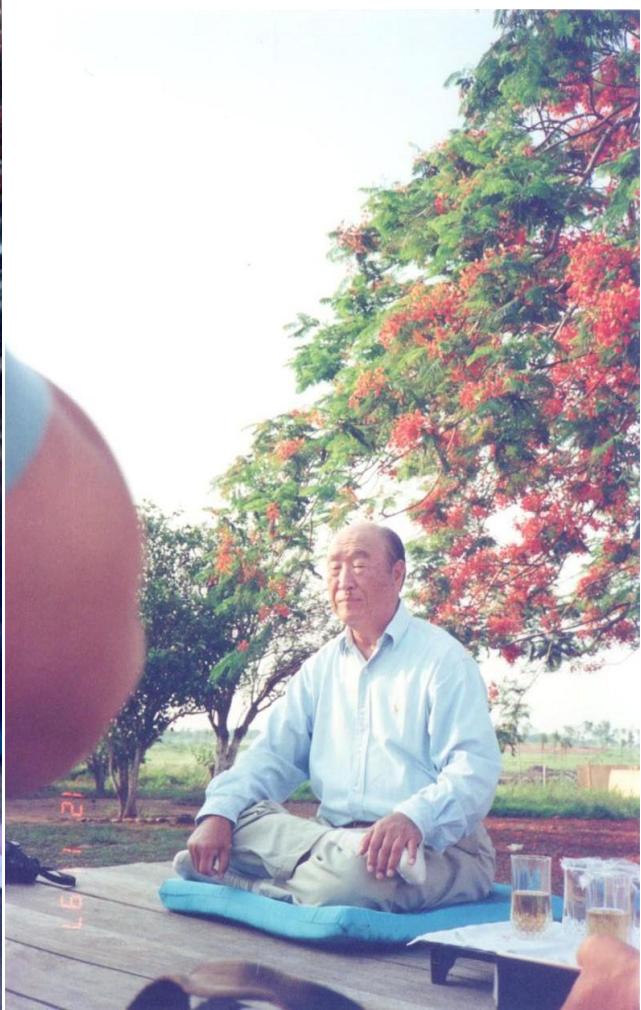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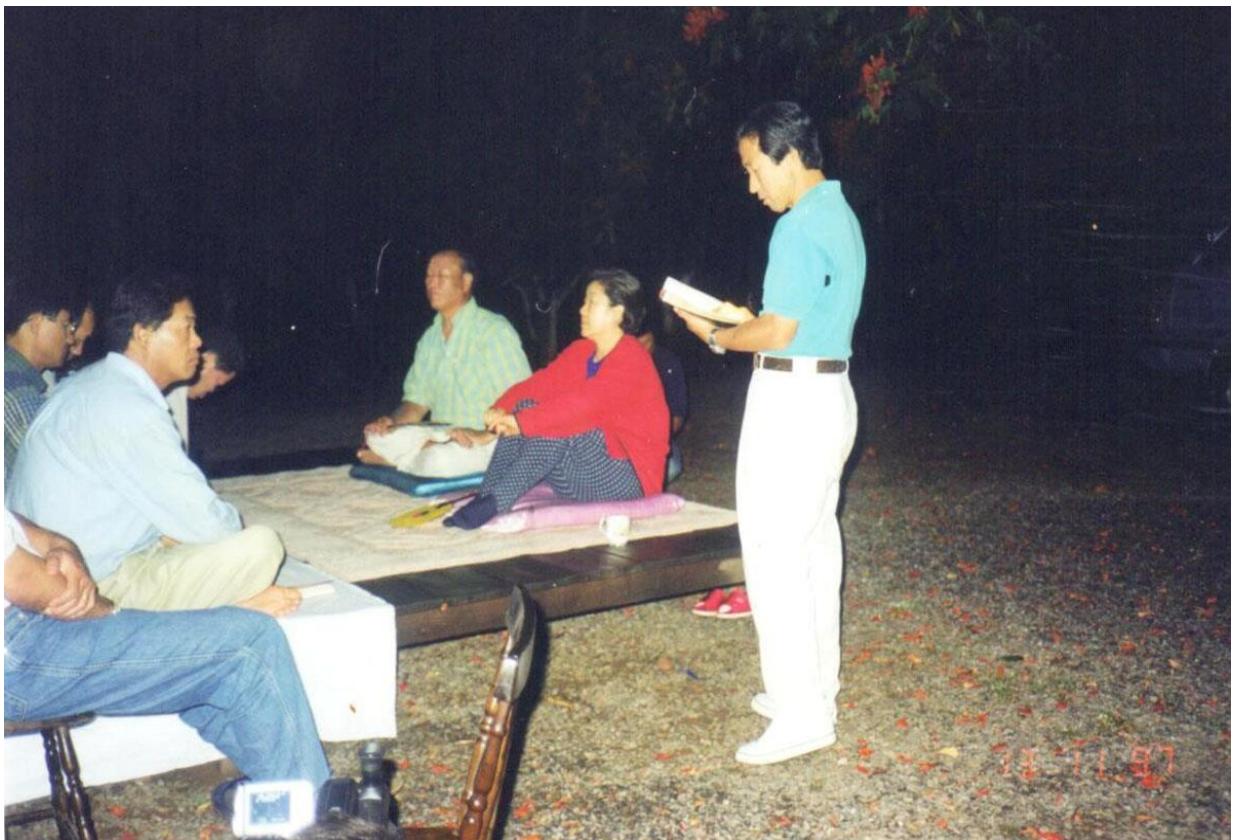
***8월2일-** 아버님께서는 살로브라에서 깜뽀그란디를 들려 그곳에서 '리틀엔젤스'를 만나시고 상파울로로 가셨다. 3일날엔 새벽부터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녁에 미국을 향해 떠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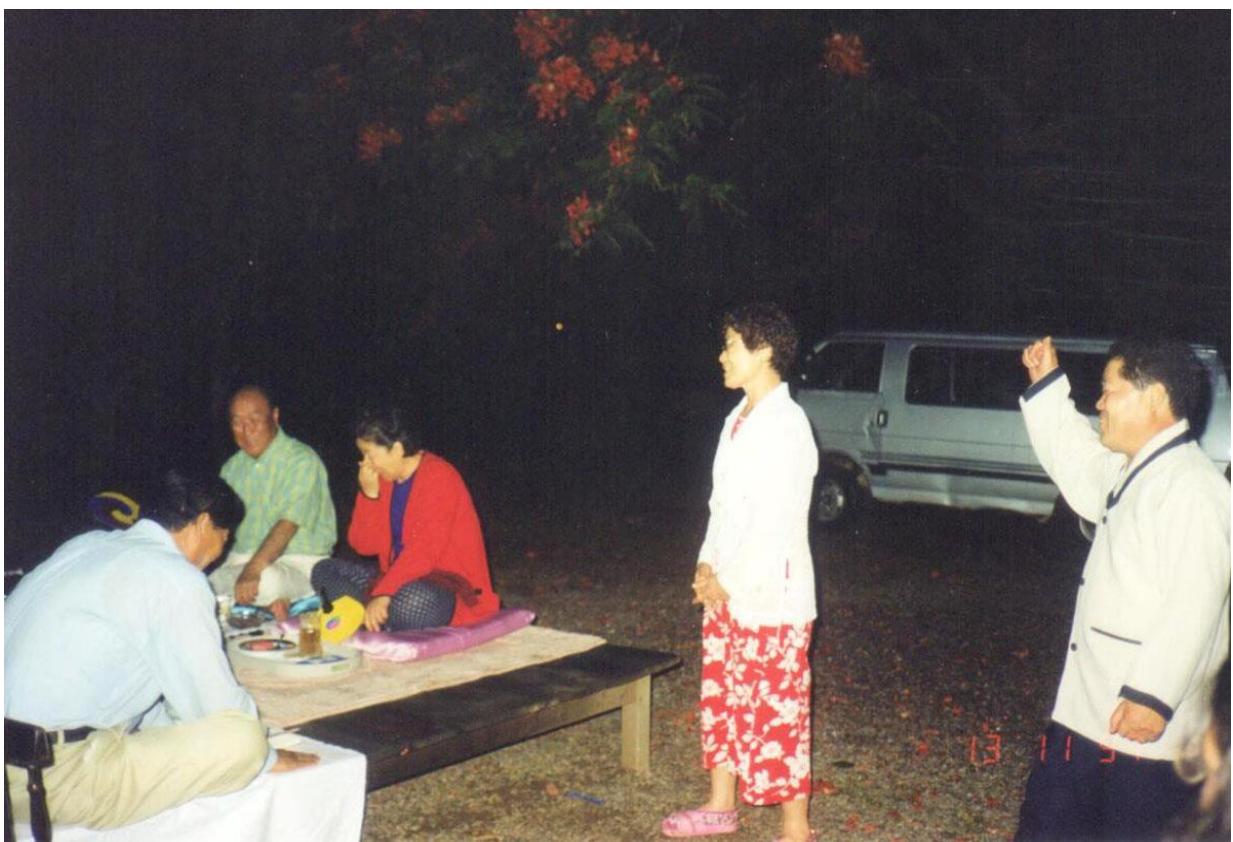
***9월20일~ 25일까지(6일동안)-** 이기간에 참부모님은 파라구아이강이 시작되는 브라질 판타날지역내 Caceres시에서 시작하여 Corumba시까지 배안에서 생활하시며 파라구아이강을 직접 탐사하셨다. 그때 50Km마다 말뚝을 박고 소유권을 선포하는 만세를 부르는 섭리를 하셨다. 원래는 Corumba시에서 파라구아이강 하류인 우루구아이까지 부모님께서 직접 탐사하실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은 박구배씨와 문평래씨가 중심이 되어, 부모님대신 입장에서 배를 갈아타고 탐사를 계속했고, 부모님은 25일 밤에 Corumba시내 호텔에서 주무셨다. 다음날 26일 아침 훈독회시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명순아, 가정맹세를 외워봐라!'라고 지시하셨다. 이날 공항에 선 Corumba시장 부부로부터 꽃다발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신후, 부모님 전용 비행기로 우루구아이로 떠나셨다. 파라구아이강은 남미를 종적으로 연결짓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남미의 참된 주인으로써 종적인 축을 세우신 섭리였음을 알 수 있었다.

***10월21일~10월26일까지(6일동안)-** 이기간엔 인디언들이 사는 아마존지역의 Tabatinga 지역을 시작으로 Tefe, Manaus, Santarem, Macapa, Belem 지역을 방문하시며, 남미를 횡적으로 잇는 아마존강을 탐사하시고, 파라구아이강탐사로 남미의 종적축을 만드신데 이어 이번엔 아마존지역에 횡적축을 설정하시어 부모님이 남미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섭리를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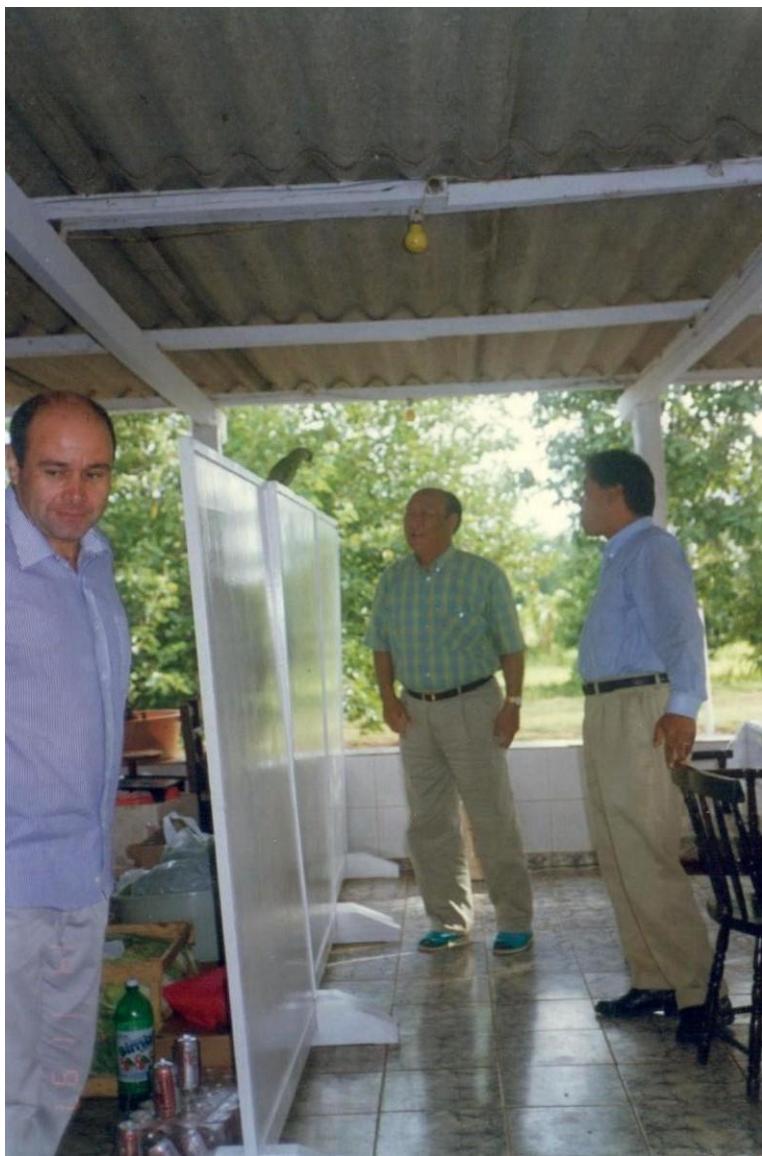
***참고:** 참부모님께서 밤낮을 쉬지 않고 정성드린 터위에 11월17일엔 청평에서 제1회 조상해원식이 이루어졌고, 이해 7월15일까지 완료된 3백6십만쌍축복에 이어 3천6백만쌍축복목표가 달성되어 **11월29일에 함께 4천만쌍축복행사**가 있게 되었다. 3천6백만쌍축복을 위한 정성기간에 부모님께서는 잘당공관 앞마당에서 매일같이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식구들과 밤에도 풀벌레소리와 함께 훈독회를 하고, 화동회를 하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셨다-**사진10장**











3. 1998년도-

*1월1일- 우루구아이의 푼타델레스찌에서 참하나님의날을 기념하시고 '참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억6천만쌍축복완성과 사탄혈통근절'이라는 연두표어를 주셨다.

*5월9일- 참부모님께서 잘당새소망대교 개통식을 하셨다.이때 효진님께서 동행하심-사진3장





***5월13일~ 5월15일-** 참부모님께서 효진님과 함께 3일동안 판타날의 아메리카노호텔에서 특별정성을 드리시고 5월15일에 '지옥해방과 천국개문을 위한 선포'를 하셨다. 그리고 김영순사모에게 연락하여 이상현선생의 새로운 영계보고서(지옥에 있는 범죄자들의 실태보고)를 지시하셨다. 또 한편으론, 아버님께서 떠나시더라도, 판타날에서 몇몇 리더들은 남아서, 계속 낚시정성을 드리도록 말씀하셨다. 그 당시 김영순사모는 지시를 꽝목사로부터 전해듣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40일 정성이나, 아니면 적어도 21일 탕감조건을 세운 뒤에 영계메세지를 받으려고 했으나, 아버님께서는 석리가 급하기 때문에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이상현 선

생님은 이미 영계에서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김영순사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독려하였다고 했다(이내용은 훗날 김영순사모가 나에게 직접 말해준 내용임). 그리하여 5월19~21일 3일동안에 정성으로 영계메시지를(칼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히틀러, 뜬솔리니, 도조, 이승만, 김활란, 박마리아가족, 박태선장로) 받아 부모님께 올렸다-사진2장



***5월16일-** 참부모님께서는 깜뽀그란디를 통해 우루구아이로 떠나셨다. 이때 깜뽀그란디공항에서 동행하셨던 효진님은 친자녀를 그리워하시며, 브라질2세 명진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5월29일-** 이날 아침, 아버님께서 깜뽀그란디에 도착하시며, 잘딩으로 가신다는 연락이 왔다. 살로브라에 있었던 나는, 바로 준비하여 3시간 걸려 잘딩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깜뽀그란디에 도착하신 아버님께서 일정을 바꾸어 판타날의 아메리카노 호텔로 가실거라는 연락이 왔다. 잘딩에선 급히 아버님을 모실 식사대원과 스탭들이 차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뿔뚜몰친뇨(차로3시간거리로,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메리카노호텔로 가야함)로 갈 준비를 마쳤다. 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다시 아버님의 일정이 변경되어, 벌써 살로브라로 떠나셨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는 한순자사모님을 중심으로 잘딩의 식사팀이 항상 살로브라, 아메리카노호텔에 가시는 부모님식사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식사팀들과 함께 잘딩에서 살로브라에 도착하니, 아버님은 이미 호텔에 도착하시어, 직원식구가 준비한 간식만을 드시고, 강으로 나가신 뒤였다. 점심을 급하게 준비하여, 살로브라 상류쪽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니 이미 늦은 시간이 되었다. 내(김명순)가, 점심을 갖고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는 '저녁먹을 시간이다'라고 하시곤 안 받으셨다. 너무나 죄송스런 상황이었다. 이때 어머님은 안오시고 형진님과 영진님께서 아버님을 동행하셨다. 저녁에 공관에 돌아오셔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시면서 '죄인들이 정배와서 사는 곳과 같은 살로브라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들르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늦게 가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5분정도 밖에 낚시를 못하셔서 고기는 잡지 못하셨지만, 신들(살로브라강을 지키는 천사들이라고 해석함)에게 인사하러 강에 갔다왔다'고 하셨다.. 섭리적 조건을 세우시러 그렇게 식사도 못하시고 위험하고도 먼 강길을 올라갔다 오신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6월13일에 있을 축복(3억6천만쌍축복 일단계인 1억2천만쌍)을 위한 정성을 드리려 오셨기 때문에 9일쯤에 돌아가실 것을 어머님께 말씀하셨다. 통화가 끝난 후에, 며칠전에 보고 받은 이상현씨의 영계메시지로 훈독회를 하셨다(범죄자들의 실태에 관한 내용. 윤기병씨가 훈독함). 그런데, 저녁식사후, 쉴 준비를 하고 있던 스탭들을 아버님께서 부르시고는, 훈독회를 또 하시겠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내가(김명순) 읽도록 지시하셨다. 아버님께서는 이 훈독회가 있기 조금전에 '충모님을 아느냐?' 나에게 물으셨었다. 그리고는 이상현씨의 첫번째 영계메시지(이미 책으로 나왔었음)를 첫장부터 읽으라고 지시하셨다. 갑작스런 아버님의 지시였지만, 그 메시지의 인물들이 직접 나를 통해 아버님께 보고드린다는 심정적 기준을 세우고 읽어나갔다. 한시간, 두시간이 지나도 아버님께서는 멈추라는 말씀을 아니하시고, 분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었다. 부엌에 있던 고집사님이 나에게 물을 갖다주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는 손짓으로 금지시키시면서 심각하게 훈독회를 진행하셨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시간까지 바쁘게 왔던 나는, 거의 3시간 동안을 물도 마시지 못하고 훈독을 하게 되니, 체력이 떨어지면서 음성조차 내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때 윤기병씨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길 '아버님, 명순씨가 쓰러지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아무 말씀을 안하셔서, 나는 힘들지만 계속 읽어나갔다. 이제는 정신까지 동통한 상태에 빠져, 의식까지 잃을 극한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윤기병씨는 참다못해 '아버님, 명순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읽겠습니다!'하고는 일어섰다. 책전체를 끝내려면 아직도 15분정도가 남았었다. 그순간 나는 아버님의 용안을 보았다. 아버님은 미소만 짓고 계셨다. 순간적으로 나는 '이 귀한 훈독회를 개인적인 욕심으로 힘들게 하지말고,

참부모님의 전속 훈독사인 윤기병씨가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어서 있는 윤기병씨에게 책을 넘겼다. 윤기병씨가 마지막 장을 훈독했을 때는 이미 밤 열두시가 지나고 있었다. 아버님께서는 1,2부로 나눠서 한 전체훈독교재를 모으시고는 아주 기뻐하셨다. 그 훈독회를 끝냈기 때문에 조건이 다 되어, 내일부터는 언제라도 아버님이 원하시면, 미국에 돌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뻤다.. 왜냐하면 6월4일에 현진님의 하버드대학졸업식이 있는 것을 그날 어머님과 통화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곧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명순이 너 개인적으로 정말 안됐다'고 애석해하시는 표현을 하셨다. 모두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조금 있으면 다리를 쭉 뻗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때 네가 만일 쓰러져서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을텐데... 윤기병! 너, 왜 그때 나타났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하셨다. 그순간 나는 '아버님,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그때서야 내가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훈독회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시려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고 또 시키신 아버지께 여쭤보지 않고 맘대로 결정을 하고 책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죽을 지경에 있었더라도, 그리고 윤기병씨가 제의를 했더라도, 시키신 아버지께 일단 여쭤봐야 했었다. 지나친 겸손도 상황에 따라 죄가 됨을 깨달았다.

***5월30일-** 아침식사후, 아버님께선 영진님과 형진님을 동행하고, 비행기로 판타날의 아메리카노호텔로 떠나셨다. 미리 보낸 식사팀이 호텔부엌(이때는 우리호텔이 아니었음)한켠에서 따로 아버님식사를 준비했다. 5월16일날 아버님께서 떠나실 때, 남아서 정성드리던 리더들이 그 곳에서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로 잘딩을 거쳐(3시간거리) 뽀두몰친뇨로 가서(3시간거리) 다시 보트로(2시간거리) 나비렉기의 아메리카노 호텔에 도착하니 한밤중이었다. 모든 스탭들도 이미 잠든 후라, 호텔식당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경비를 체크했다. 호텔직원이 밤에 경비를 서고 있었고, 아버님을 위한 경비는 따로 없었다. 아버님이 머무시는 방은 나무로 된 따로 떨어져있는 '샬레'였다. 31일 아침에 식사팀과 같이 14호실에 머물며 나는 아버님과 자녀님들 방청소와 빨래를 책임맡고, 식사때는 서빙을 도왔다. 후도시씨에게 아버님 경비 문제를 얘기하며, 리키씨와 함께 교대로 철야경비를 서달라고 부탁했다. 하루종일 강에 나갔다가 온 그들은 피곤했지만, 고맙게도 내말을 들어주어, 31날밤에 아버님과 자녀님들 방을 지키며 경비를 서주었다. 식사팀들이 자는 14호실은 훈독실로 또 아버님과 자녀분들을 위해 식사를 서빙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기간의 훈독회교재는 이상현씨의 영계의 메시지였다.

***6월1일-** 저녁식사후 아버님께서는 다시 훈독회를 하시면서(아침에 이미 훈독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2일)은 아침에 훈독회를 하지않고, 6시에 아침식사를 하신 후에 잘딩으로 나가신다고 하셨다. 이날 밤 훈독회때, 영계에서의 박마리아가정의 비참한 실상을 훈독했다. 이상현씨가, 참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셔서 그들의 비참상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상현아, 네 책임이다'라고 하

신 대목이 나온다. 이때,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길 ‘ 하나님께서 이상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책임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셨다. 이날은 영적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웠고 모든 스탭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자녀님들도 이 기간동안에 배탈이 나는 등,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도시씨와 리키씨는, 그날밤엔 도저히 철야경비를 설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신변이 걱정이 되어, 내가 새벽2시까지 경비를 서고 후도시상은 2시부터 일어나서 경비를 서는 걸로 합의를 보았다. 아침훈독회를 안하실꺼니까 2시부터 아침식사 준비시간 까지는 조금 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밤10시에 주위를 살피며 영계의 흥진님을 찾으며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겨울이라 아주 추었고 소름이 끼치는 무서움이 나를 습격했다. 아버님의 이번 일정이 영계의 지옥을 해방시키는 섭리를 위한 조건이었기에, 사탄의 공격도 심할 것은 당연했다.

호텔분위기는, 모든 손님들이 잠든 상태여서 적막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둠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나를 금방이라도 유괴할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어, 밤12시 가까이에는, 다른쪽 호텔 복도에서 아버님방쪽을 보면서 앉아있었다. 졸음이 무겁게 몰려오는 걸 억지로 견디면서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방 앞에 등(그전까지는 불이 꺼진 어두운 상태였다)이 켜 있는 것을 보았다. 막 밤1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턴 졸음도 무서움도 완전히 사라졌다. 섭리적인 중요한 일이 밤열두시를 지나면서 일어났음을 느끼면서, 기쁜 마음에, 그대로 혼자서 철야경비를 끝내고 싶은 욕심까지 생겼다. 그러나 새벽2시가 되자(6월2일), 약속한대로 후도시상이 깨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머지 경비를 맡겼다. 그런데, 3시가 조금 넘어, 후도시상이 갑자기 모두를 깨우면서 ‘아버님께서 새벽4시에 특별기도를 하실거다’라고 알렸다. 3시에 아버님께서 방에서 나오셔서 모두들 준비하라고 지시 하셨단다. 우리 식사 서빙팀들이 자는 14호실이 바로 훈독회실이었다. 모든 스탭들이 깨어서 복도를 왔다갔다하며 소란을 피우니, 자고있던 호텔 손님들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님의 긴급하고도 특별한 지시만을 생각하며, 남의 호텔에 있으면서 이른 시간에 소란을 피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염두에도 없었다. 특히 나의 경우는, 철야하면서 밤12시를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아버님께서 특별한 행사를 하실려고 일정을 변경하셨음을 느끼게 되었다. 모두들 모였는데,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조금 늦게 나타난 영진님의 뺨을 때리시고 기도하시니 분위기는 아주 심각해졌다. 그날 기도때에 아버님은 ‘박마리아가정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어린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었다. 그 기도내용을 듣고 나는 ‘참자녀인 영진님이 탕감을 치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아버님께서 꽉목사에게 밝히심), 그때 아버님은 아메리카노 호텔에서 3일동안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특별정성을 드리셨단다. 이상헌씨를 통해 보내온 영계메시지에서 박마리아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증을 아버님은 읽으시고, 엄청난 탕감조건을,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세우신 것이었다. 아침 식사시간에, 고맙게도, 영진님은 다른 때보다 더욱 아버지앞에 효성스럽고도 친근한 자세를 보여주셨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해드리려는 그 효자되신 영진님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다. 아버님은 그날 오전 잘당에 도착하셔서 미국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하시면서, 모든 조건이 다 되어, 바로 미국으로 돌아 가실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용기가 5일날이나 출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어머님과 의논하신 후, 살로브라로 가셨다

*6월3일~4일- 살로브라에서 계속 낚시정성을 드리셨다. 사실 6월4일은 현진님의 하버드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아버님께서는 미국에 가시고 싶으셨으나, 비행기가 준비안되어 살로브라에 오신 것이었다(아버님을 모시는데는 항상 미리 미리 준비해야함을 느낌) 아버님은 4일날 6마리의 빠꾸를 잡으시고 아주 기뻐하셨다(아버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하늘앞에 제사드리는 효자이심을 느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싶었다)이날 사탄수인 4수와 6수를 완전히 복귀하셨다고 기뻐하시며, 식사하실 때(다른 때와 달리 밥공기를 다 비우셔서 한그릇 더 갖다드리니 '한그릇 더 먹으라고?' 하시며) 밥도 두그릇이나 드셨다. 6월13일의 축복을 통해서 13수를 완전히 복귀하시게 될 것을 그때 미리 알려주셨다-사진1장



*6월5일- 살로브라에서 아침식사후, 깜뽀그란디에 가셔서 전용기로 미국을 향해 출발하셨다. 아버님은 그날 살로브라에서 화장실까지 다녀오셔야 했던 섭리적 뜻이 있었는데, 그일을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깜뽀그란디공항에서 이루셔서, 지저분한 역사를 모두 깨끗이 청소했다는 조건을 세우셨다고, 훗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하시자마자 광정환씨에게 '13일에 있을 1억2천만쌍축복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단다.

*참고: 5월13일~ 6월5일까지 판타날을 중심으로 정성드리신 특별섭리에 대하여는 '가정연합시대의 주요의식과 선포식III' 의 책자중 '지옥해방과 천국개문 선포(Pg 228~237)' 부분에도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있음.

*6월13일- 1억2천만쌍축복식(1차 3억6천만쌍축복식) 때, 성인과 악인대표 34명이 함께 축복을 받았다.

*34인명단: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메트, 마리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셉, 세례요한, 소크라테스, 스웨덴보르그, 선다씽, 이승만, 김활란, 박마리아, 박정희, 아이젠하워, 닉슨, 기시, 후꾸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히틀러, 도조, 뮤솔리니.

*6월20일- 참부모님께서 신원님과 신애님을 동행하고 살로브라에 오심. 6월23일부터 판타날에서 국가메시아 40일 수련을 시작하고, 7월21일부터는 잘딩에서 일반축복가정들의 40일 수련을 시작하실 것을 지시하시면서, 수련생들이 살로브라지역에 성지순례를 왔을 때 '부모님로정을 잘 설명해주라'고 살로브라 책임자인 나(김명순)에게 아버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다. 이기간에 아버님께서, 하루는 신원님께 자연만물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식사시간에 신원님접시에 개미 한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신원님은 놀라서 '아줌마, 내 접시에 개미가 있어요!'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서빙을 하고 있던 나는 너무나 죄송해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신원아, 그 개미가 네가 좋아서 거기에 있다.'라고 하셨다. 사진 1장



*6월23일- 판타날의 국가메시아 40일수련 시작. 한사람만을 놓고라도 이날 꼭 시작해야 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음.

*7월1일- 잘딩에서 제 8회 칠일절을 기념하시고, 오전 10시에는 세계평화 이상가정 교육본부

헌당식과 함께 말씀주심. 참부모님께서는 아주 기쁜 모습을 보여주심. 다음날 2일에 올림포로 가심-사진2장



*7월22일- 제1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40일 수련개회식을 참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새소망농장'의 명칭을 'New Hope East Garden'으로 개명하심. 그리고 올림포로 가심.

*8월7일- 잘당에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이상가정'에 대한 '제2선언'을 참부모님께서 발

표하심.

***8월21일**- 잘당에서 '제1, 제2, 제3 창조주'에 대한 '제3선언'을 참부모님께서 발표하심.

***8월28일**- 잘당에서 제2회 칠팔절을 기념하시고, '숙명적 제안'에 대한 '제4선언'을 발표하시면서 아버님께서는 '일본 식구들을 사랑하고 구해주기 위해, 아버님께서 고생하신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흥진만이 안다'고 눈물로 말씀하심-사진2장



***8월29일**-잘당수련생들과 입적사진을 찍어 주시고, 30일에 미국으로 떠나심.

*9월8일- 알라스카에서 '제5선언'인 가정적사사절을 선포하시고 -남(판타날)과 북(알라스카)이 하나됨을 말씀하심.

*9월22일- 참부모님께서 영진님, 형진님과 함께 잘당에 도착하시어 말씀주신 후, 올림포로 가심. 30일에 다시 잘당에 가셔서 40일 수련생들에게 말씀해주시고, 10월1일에 상파울로에 도착.

*10월3일- 제11회 통일국개천일을 상파울로에서 기념하시고 말씀주심.

*10월4일- 새벽 5시에 기도와 훈독회를 주관하신 후, 6층공관에서 리더들과 모임을 갖으셨다. 그런 뒤, 다시 오전11시30분에 대성전에서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10월5일-상파울로에서 추석을 맞아, 오전 8시에 참부모님께서는 '제6선언'인 '총영계 영인해방식(전체해방 통일식)'을 거행하심. 이때 예수님은 미국에, 석가는 한국에, 공자는 중국에, 마호메트는 중동에,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남미로 지상임지가 정해짐. 아버님의 축도중에 김형태회장은 환상을 보았다고 나중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아버님의 축도를 받은 영인들의 옷이 순식간에 화랑도의 옷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이날 아버님은 리더들을 두팀으로 나누시고는, 한팀은 영계대표로, 다른 한팀은 육계대표로 정하시고 윷놀이를 하게 하셨다. 육계팀이 승리했을 때, 아버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 6층거실에서 국가메시아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는 국가메시아가 아니었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옆에 조용히 앉자있었다. 갑자기 아버님께서 '원주!'라고 부르셨다. 원주씨가 5층에 내려갔는지 대답이 없자 '원주!'하고 다시 부르신다. 나는 말씀을 놓치지않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황선조협회장이 일어서면서 '제가 가서 원주씨를 불러오겠습니다!' 했다. 그순간 나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자격없이 개인적 욕심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원주씨를 찾아오는 것이 도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황회장님께 '아니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했다. 그순간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명순아, 너는 거기 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오! 아버지는 나의 욕심이 무언지를 아셨고 또 내가 불청객으로 와있다고 생각하고 불편해하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읽고 계셨다. 그리고는 국가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딸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셨다. 그때 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꼭 아버지말씀에 부끄럽지않는 딸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10월 6일에는 판타날의 올림포로, 9일엔 잘당에서 수련생들과 함께, 다시 다음날엔 판타날의 올림포, 13일 밤늦게 잘당으로 오셔서 14일에 수련생들에게 말씀하신 뒤, 다시 판타날의 올림포로 가셔서 정성드리시고, 23일에 잘당수련생들과 만나시고 같은날로 다시 올림포로 가셔서 낚시정성 드리시다가, 31일에 잘당에서 40일수련생들에게 입적사진을 찍어주셨다.

*11월1일- 새벽 5시부터 참부모님께서는 잘당에서 수련생들과 함께 훈독회와 말씀을 주셨고, 3

일엔 뻘지도강을 방문하시고, 다음날 4일에는 살로브라에 오셨다. 그리고 5일에는 올림포를 가셨다가 바로 그날 다시 잘딩에 나오셔서 수련생들과 함께 하시다가, 11에 미국으로 떠나심.

***11월28일-** 참부모님께서 잘딩에 오셔서 2일간 계시면서 수련생들에게 입적사진을 찍어주시고, 30일에 우루구아이로 떠나심.

4. 1999년도-

***1월1일-** 우루구아이에서 참하나님의 날을 기념하시고 연두표어를 ‘참축복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주시고 ‘제7선언’으로 발표하심.

***1월9일-** 이날, 참부모님은 잘딩에 오셨고, 일행 모두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수련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신 후, 공관에 도착하셨을 때는 식사도 못하시고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셨다. 어머님도 피곤하셔서 방에 들어가신 뒤였다. 나(김명순)는, 거실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신 아버지를 보고서, 너무나 놀라서, 옆방의 원주씨를 불렀다. 차려논 점심도 못드시고, 지쳐서 정신없이 쓰러지신 아버지를 보고, 원주씨는 지혜롭게 비데 오를 크게 틀었다. 그제서야, 아버님께서 비데오소리에 깨시어, 정신을 차리시고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리고는 식사후, 또 차를 불러 농장을 들러보시고, 보니또시와 경계지까지 다녀오셨다. 섭리앞에서 육신의 피곤을 잊으시려는 아버지의 몸부림을 봄면서, 가슴이 저리도록 마음이 아팠다.. 참부모님은 99년 새해 첫날들부터 이렇게 강행군을 하셨다.

***2월7일-** 한국에서 3억6천만쌍 축복식을 거행하신 후, 참어머님께서는 11일부터 세계80곳의 순회강연을 시작하셨다.

***3월18일-** 참아버님께서 살로브라에 오셔서 힘든 낚시정성을 드리시면서도, 어머님의 강연시간 전에 공관에 도착하시어, 어머님이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 혼신을 다바쳐 원고를 따라 읽으시고, 축승회를 통해 어머님을 격려하시며, 지극한 정성을 드리셨다.

***3월21일-** 이날, 아버님께서는 살로브라강에서, 이때까지 잡으신 것 중에서 제일 큰 빠꾸를 잡으시고 아주 기뻐하셨고, 어머님께서는 뉴욕대회를 성공리에 마치셨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날, 루시엘이 자연굴복하며 용서의 편지를 보낸 날이었다. 이날 우리들은 이소식을 몰랐으나 만물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강에서 나비들과 잠자리들이 아버님께 몰려와서 춤을 춘 것을 다음날 김윤상씨가 보고했다-사진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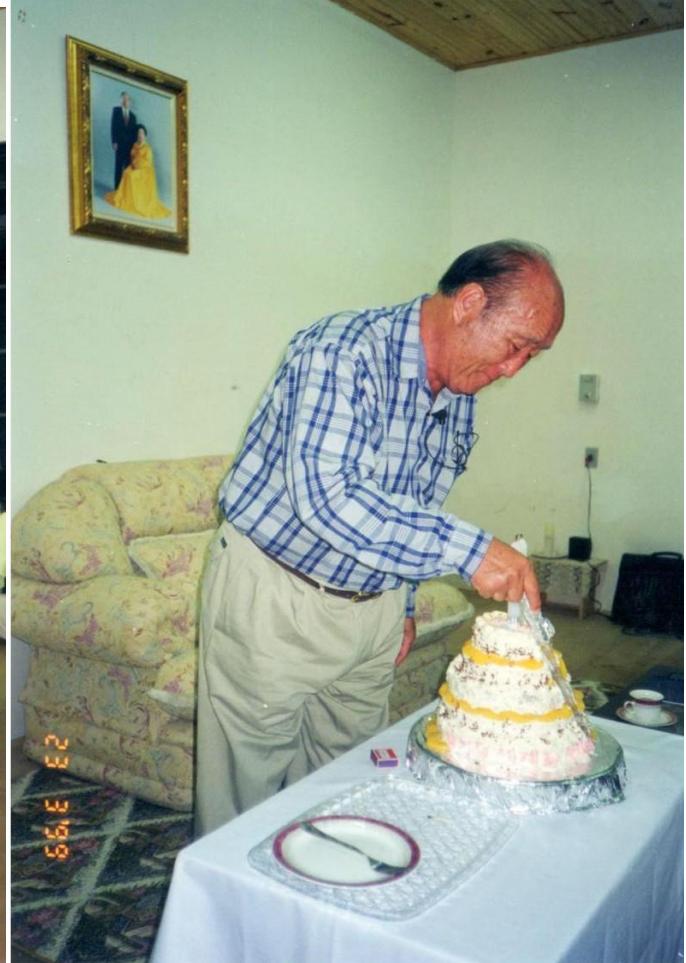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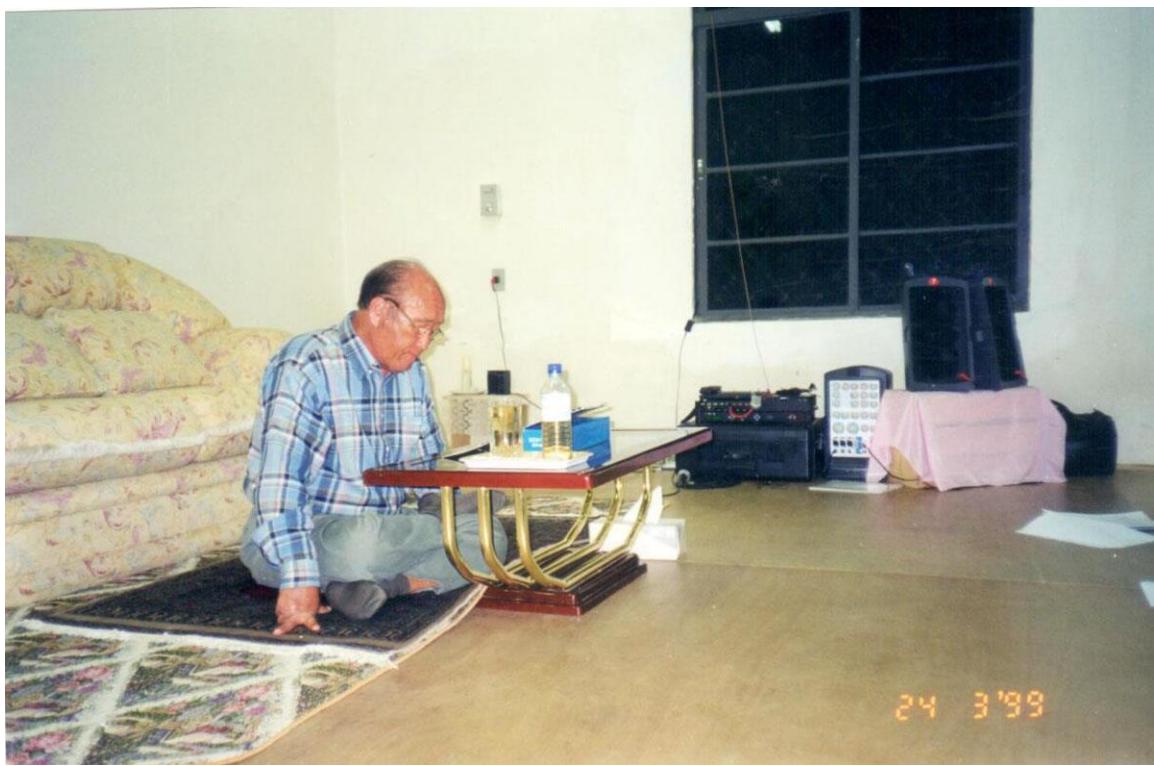


***3월22일-** 아버님이 살로브라에서 올림포로 비행기로 가실 때, 나를 아버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아버님은 창문으로 판타날을 보시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 이날 어머님께서 감기드시어 강연 중 기침을 가끔 하셨다. 올림포에서 아버님은 강연이 끝나고 축승회를 할 때, 새식구가 된 지역주민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선교사에게 배운 한국노래도 불렀다. 어제는 강에서 만물들이 송영을 드렸고, 오늘은 오색인류를 대표해서 모두들 기쁨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송영을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늦은 시간인데도, 방에 들어가셔서는 쉬시지 않고 또 어머님의 원고를 놓고 정성드리시며 늦게까지 혼자서 훈독하셨다. 모시는 분(명원언니)이 아버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쉬실것을 말씀드릴 때, 아버님은 역정까지 내셨다. 뜻을 위해 희생의 길을 가시는 어머니를 위해 아버님은 뒤에서 더 큰 정성을 투입하고 계셨다-사진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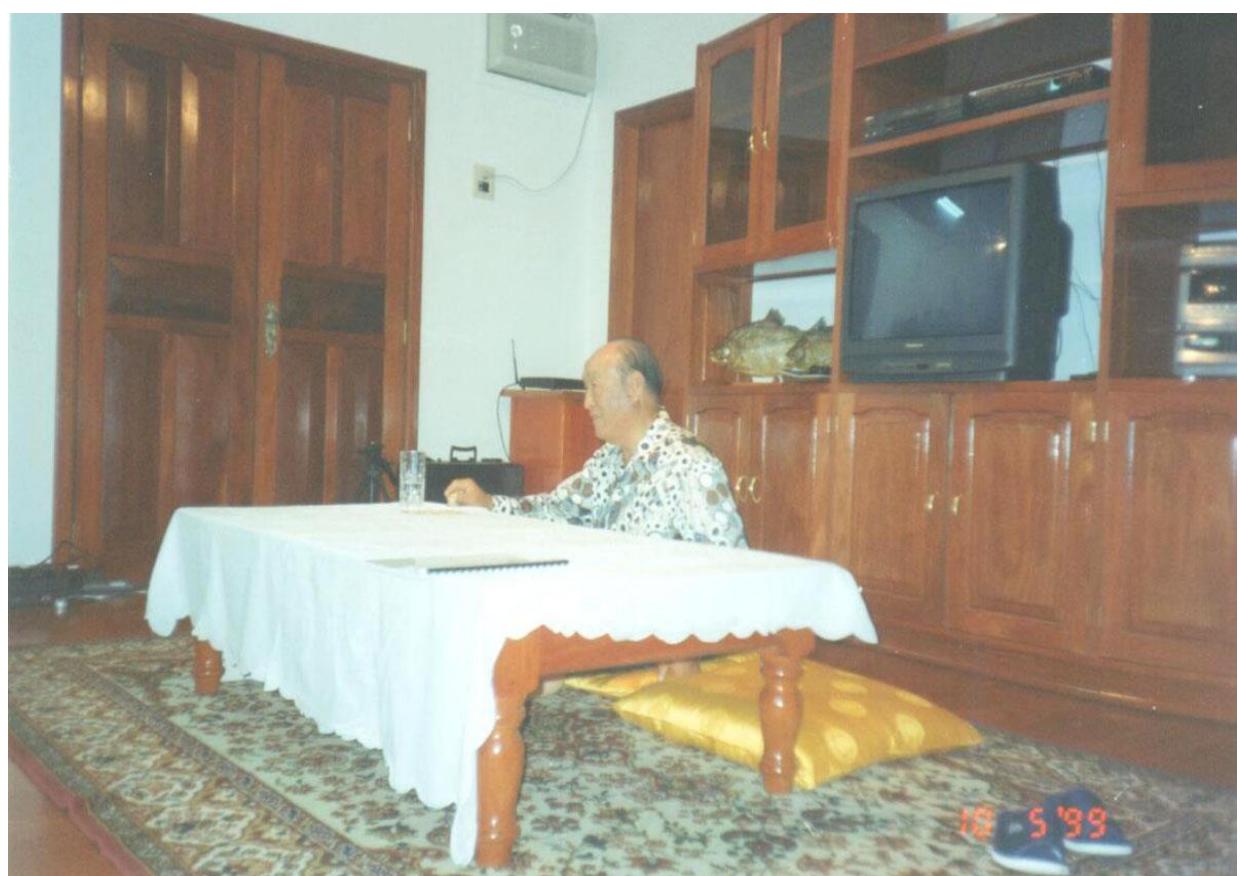




*3월26일엔 잘딩으로, 28일엔 살로브라로... 어머님이 순회 강연을 하시는 동안 아버님은 남미에서 정성드리시다가 4월3일 미국으로 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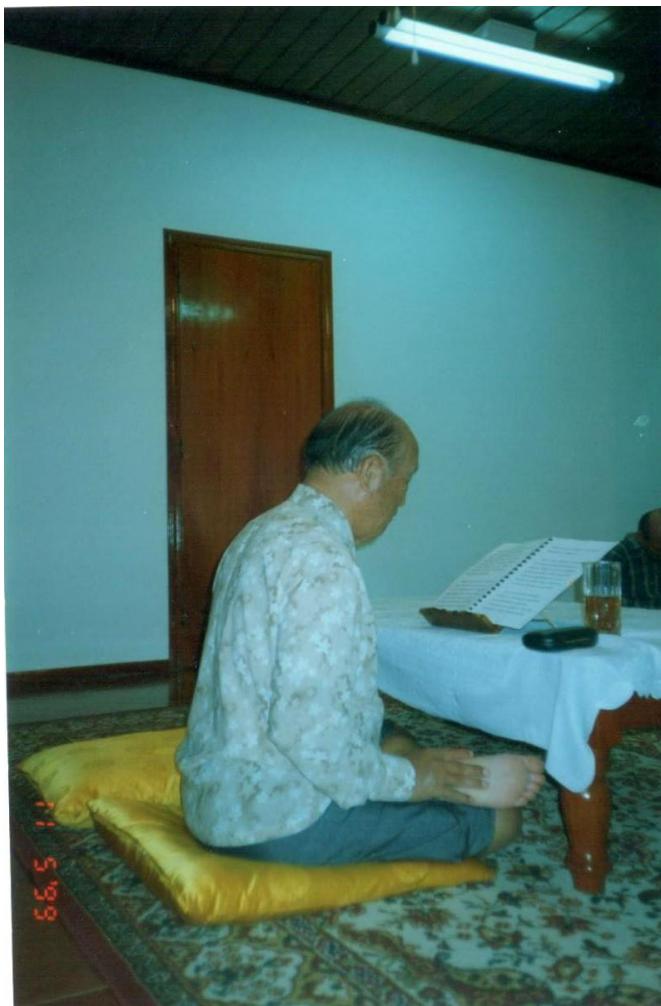
***5월4일-** 어머님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강연하시고 이날 아버님은 우루구아이에서 정성드리셨다.

***5월10일-** 잘딩을 거쳐 아버님께서 살로브라에서 오셨다. 12일까지 정성드리시고 13일날 파라구아이쪽 판타날의 올림포로 가셨다-사진1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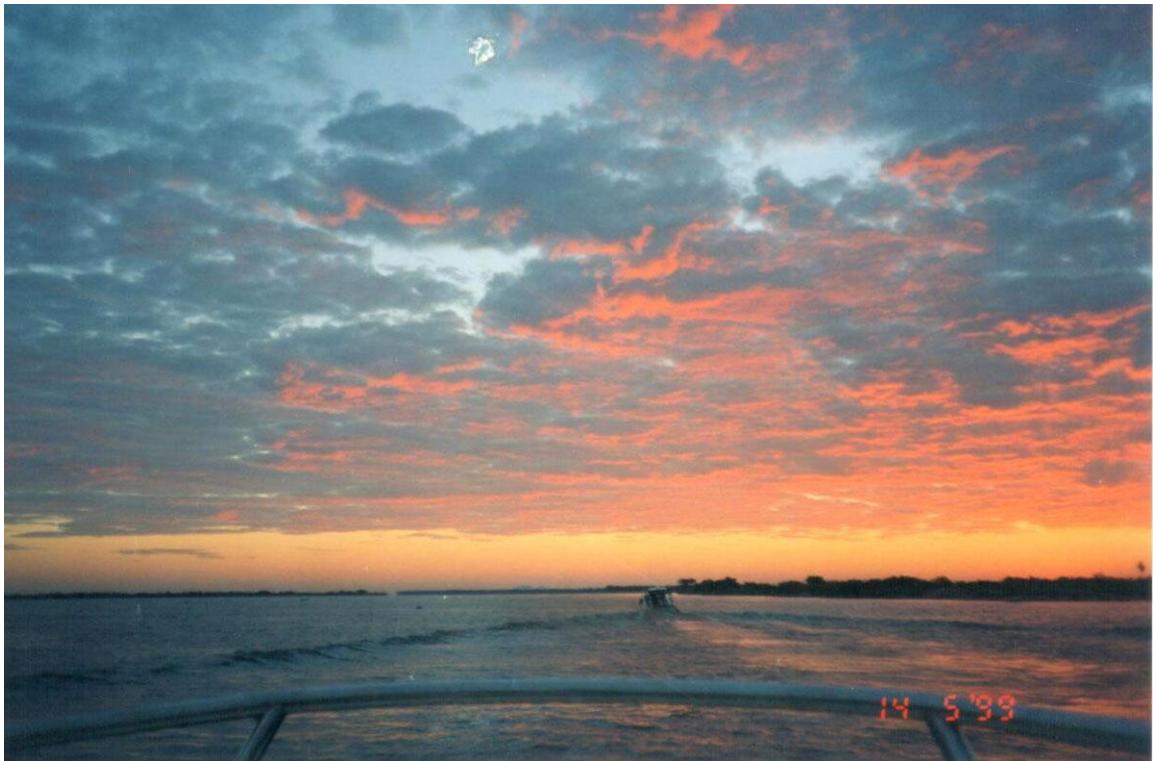


*5월13일- 올림포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과 몇몇 리더만 빼고, 여러 한국지도자들이 브라질 비자는 받았는데 파라구아이 비자가 없었다. 브라질에서 파라구아이 강을 따라 배로 온 것을 지역 경찰들이 눈치채고, 밤인데도 바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밤 열시가 넘어도 아버님이 훈독회를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셨다. 집 밖에선 경찰들이 계속 위협을 하는데도 아버님은 모르는척하고 계시고, 파라구아이 국가메시아인 문평래씨가 그들에게 ‘ 회의가 끝나면 비자없는 사람은 나가겠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고, 계속 위협을 하며 밤이 늦었는데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거의 좌정이 다 되는 시간에 비자없는 한국리더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브라질쪽 아메리카노호텔로 옮겼다. 시골에서 경찰들이 밤늦은 시간에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것을 보고, 아버님께서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계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5월14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다른 날과 달리, 아버님께서 정장을 하시고 배를 타신후 브라질쪽 판타날인 아메리카노호텔로 가셨다. 낚싯군들만 가는 호텔에 정장과 구두를 신고 배에서 내리셨다. 아버님이 주무실 방(샬레)을 들리신 후, 14호실(박마리아를 용서해주신 곳)호텔방으로 가셔서, 루시엘을 용서해주시고 천주를 해방시키는 특별기도를 하셨다. 루시엘이 3월21에 항복문서를 보내왔지만, 공식적인 식을 통해 용서식을 하신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 이날 어머님은 남미순회 마지막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대통령을 만나시고 대승리를 거두시었다. 참부모님께서 루시엘을 자연굴복시켜 천주적승리를 쟁취하신 귀한 날이다.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올림포에서 있게된 원인을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이기간은 98년 호진님과 함께 아메리카노호텔에서 3일간 특별정성(5월13,14,15일)을 드리시고 ‘지옥해방과 천국개문을 선포’하신 그 기간과 연관이 있는 날들이다. 방이 좁아 남미의 국가메시아들이 다 방에 들어갈 수 없어 호텔복도에서 회의를 하셨고, 또 호텔주인과 만나 포옹을 하시면서 사탄세계를 자연굴복시키고 참사랑으로 품으시는 조건을 세우셨다.-사진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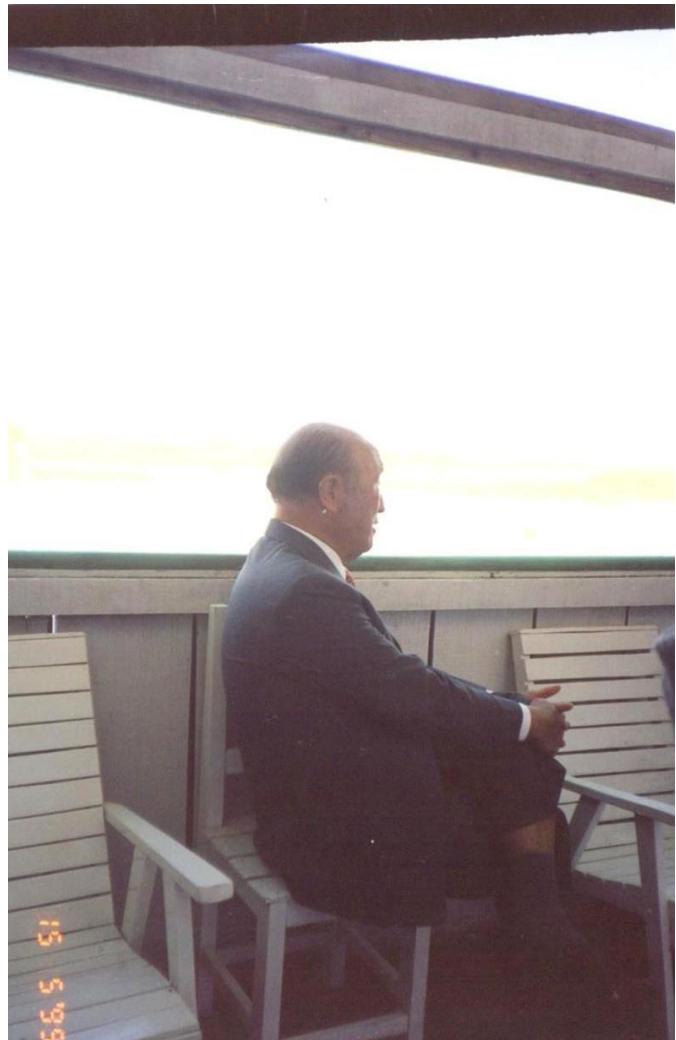


66.5 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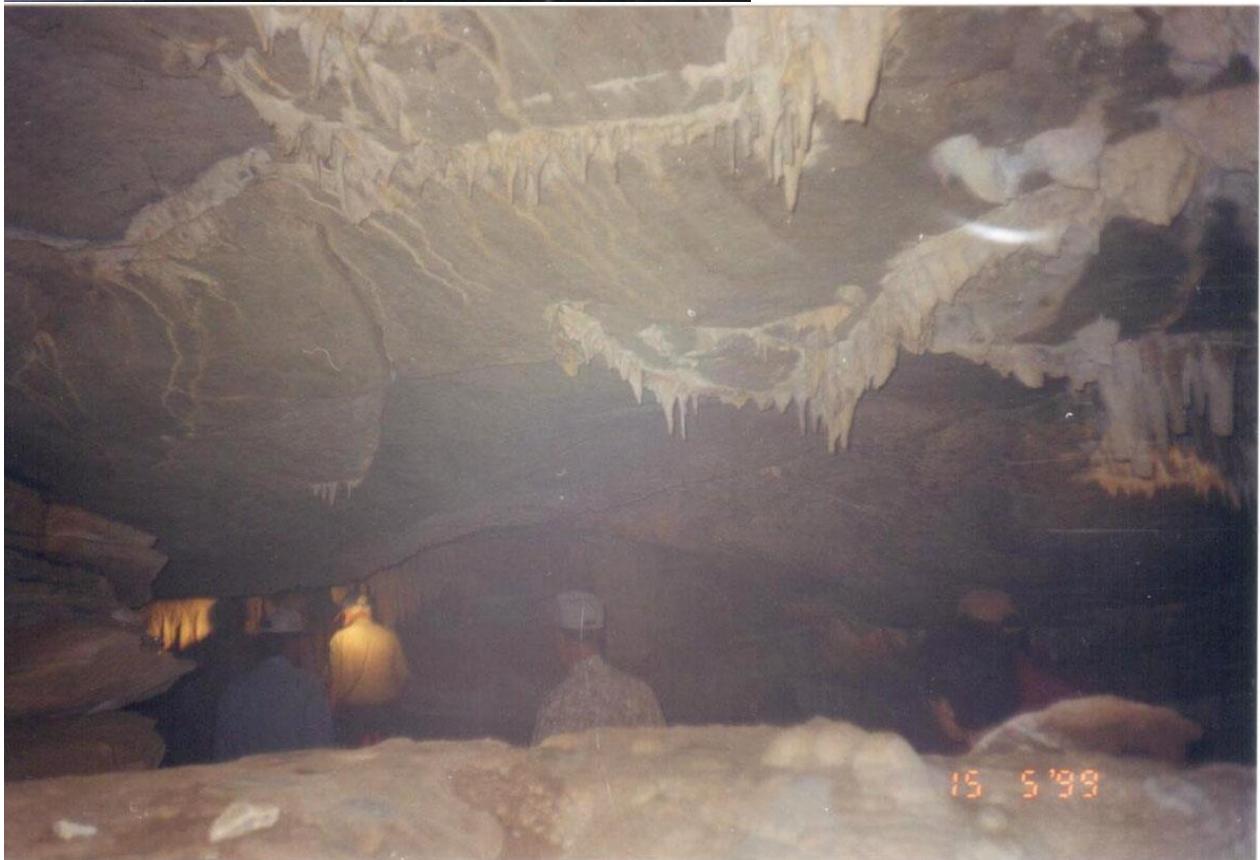
14 5'99

*5월15일- 전날 천주해방식을 했던 14호실에서 아버님께서 식사하실때, 서빙하고 있던 나(김명순)에게 삶은 달걀을 먹으라고 주셨다. 카톨릭문화에선 달걀은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참부모님께서, 천주해방식으로 부활시킨, 전 인류를 대표한 입장에서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잘당으로 가시기 전에 동굴을 방문하셨다. 동굴속을 거니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옥을 직접 가셔서 해방시키시는 참사랑의 모습이었다.-사진6장









*5월20일- 살로브라에서, 어머님의 순회강연 시간에 맞추어, 아버님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지극한 정성을 드리셨다. 이날은 아버님께서, 강에 나가셨다가 오후3시쯤에 공관에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잘딩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수행원들은 모두 짐을 챙기러 갔는데, 아버지는 식사를 살로브라에서 하고 가셔야 한다며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예고없이 일찍 돌아오셔서 아직 식사시간이 아님으로, 식사팀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쌀을 전기밥솥에 앉혔다. 나(김명순)는 '왜 아버지께서 급하게 강에서 돌아오셨을까' 그리고 '잘딩가셔서 저녁식사를 하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식사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간에, 살로브라에서 밥을 드시고 가셔야 한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아버님 옆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아버님은 '왜 빨리 밥을 갖고 오지 않느냐'고 재촉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님, 아직 밥이 끓지를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버님은 너무 피곤해보였고, 시간에 쫓기시면서도, 살로브라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셔야 할, 우리가 이해못할, 분명한 섭리적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았다. 갑자기 아버님께서 혼자말처럼 하시기를 '이 지저분한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하셨다. 옆에 있던 나는 가슴이 철렁하며 놀란 마음으로 아버님의 용안을 보았다. 왜냐하면, 99년 그해에 위험한 아버님의 생명(식구들이 많은 계시받음)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특별정성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아버님은 말씀하시길 '명순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니?' 하셨다. 나는 더욱 놀란 모습으로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버님, 하나님이 여기 안계세요?'라고 반문했더니,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셨다. 나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와 함께 안계세요?'라고 다시 반문했다. 아버지는 그때 대답하시길 '명순아, 영계법과 지상법은 틀리단다'라고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순간 나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뼈절이 느끼게 되어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루시엘을 자연굴복시키기 위해 지옥같은 이 판타날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시는 동안,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던 효자이신 우리 아버지셨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으론, 훌로 이길을 개척하시며, 지옥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그 위험한 살로브라강을 생명을 걸고 오르내리시며, 밤에도 쉬지 못하시고, 처절한 고통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를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아버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아버님은 천주해방식을 통해, 완성한 3차아담, 메시아, 하나님의 참호자로서의 책임을 완료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지상의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어, 나는 그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어린애같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보고 싶으시겠지만, 좀더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우리옆에 계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옆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후 아버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식사를 하신 후(그때는 아버님 혼자서만 식사를 하심), 슬풀 정도로 심각한 모습으로 잘딩가는 차를 타셨다-사진3장





***5월23일-** 이날 아버님은 미국으로 가셔서, 28일 중국을 끝으로 순회강연을 마치신 어머니와 함께, 5월30일 뉴욕에서 ‘참부모님 동서양 승리축하 선포’식을 갖고 **6월14일엔 한국에서,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대회’를 하심.**

***7월11일-** 참부모님께서 잘딩에 들르시어 9차 40일 수련생들에게 입적사진을 찍어주시고 살로브라로 가셔서 7월13일까지 정성을 드리셨다-**사진6장**







*7월22일- 이날은 40일 입적수련을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참부모님께서 새벽 6시부터 수련생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입적사진도 찍어주셨다.

*7월27일-브라질 판타날지역의 아메리카노호텔(천주해방식을 하신 곳으로, 이때는 이미 호텔을 참부모님께서 구입하신 상태)에서, 참부모님께서 그지역을 '원초성지,근원성지,승리성지'로 선포하셨다. 그 기간에 양준수원장의 사모님께서 특별한 정성을 그곳에서 드리셨다.

*7월28일-3차아담시대가 끝나고 4차아담시대가 도래함을 말씀하셨다.

*8월4일- 판타날 아메리카노호텔에서 성지순례를 온 40일수련생들에게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40일수련동안에 수련생들은 성지순례를 하는데, 잘당외에 참부모님이 특별정성을 드리신, 뻘지도, 살로브라, 판타날지역 올림포(파라구아이)와 아메리카노호텔(브라질)을 방문한다.

*8월6일- 잘당에서 수련생들에게 입적사진을 찍어주시고 미국으로 떠나심-사진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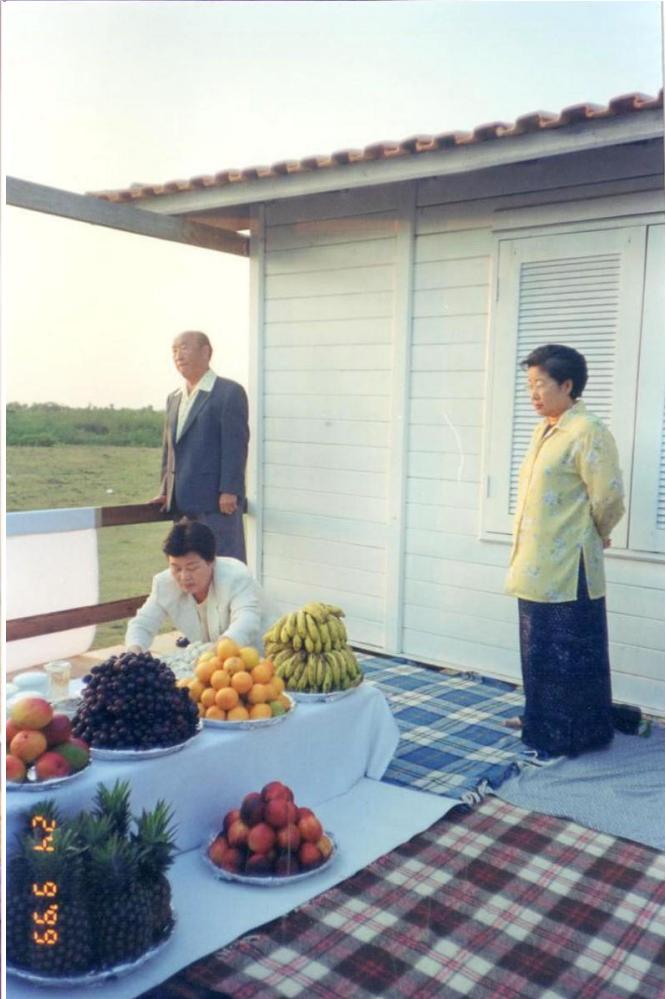


*9월9일- 한국에서 구구절 선포하심.

*9월14일-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시대 선포.

*9월24일- 23일에는 올림프에서 일본국가메시아 40일 수련생들과 사진촬영하신 참부모님께서 다시 브라질쪽 판타날 아메리카노호텔에 오셔서 24일, 추석명절을 보내심. 그 전날 자정까지 야외마루를 급하게 만들어 상을 차릴 공간을 만듦. 29일에는 잘당공관에서 식구들에게 말씀주심-사진11장











*10월10일- 4차아담시대의 공식적출발 선포

*10월27일- 영진님 사고당함.

*11월7일- 천성왕림궁전 봉헌식

*12월1일- 참부모님, 깜뽀그란디에 도착하셨을 때, 영진님사건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이 들어, 어떻게 부모님께 위로의 인사를 드릴까를 몰라하고 있는데, 그마음을 읽으셨는지, 아버님께서 파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늘이 참 맑구나!’ 하셨다(아버님용안이 부운걸 보니 남몰래 많이 우신 아버지임을 느낄 수 있어 가슴이 조여왔다). 그런후 바로 판타날의 올림포를

거쳐서, 같은 날 잘딩에 도착하시어 수련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다음날 우루구아이로 떠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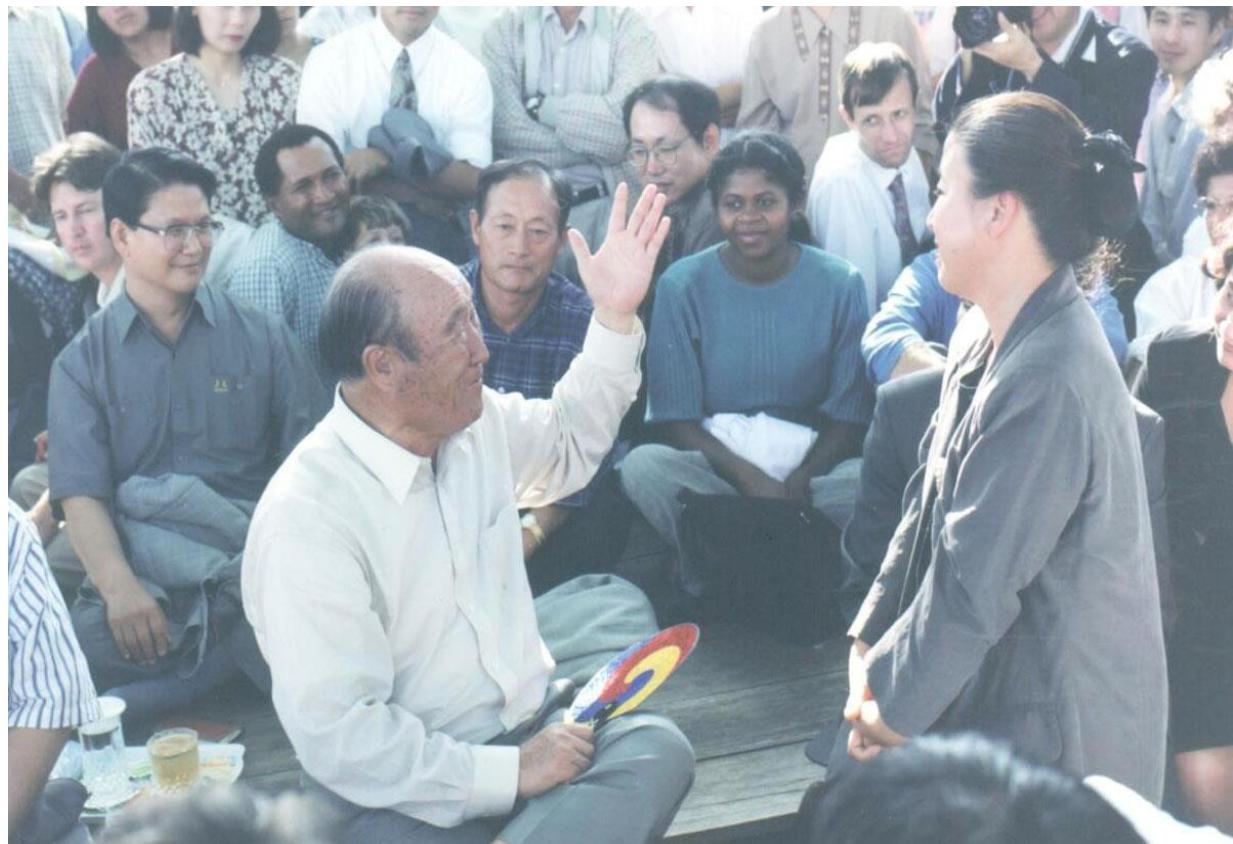
5. 2000년도-

*1월6일- 참부모님 잘딩도착

*1월7일- 참부모님 잘딩에서 판타날을 거쳐 우루구아이로 가심.

*5월6일- 참부모님, 상파울로 도착후, 소로까바클럽 방문하심(4월 4일에 인수했음)

*5월7일- 상파울로에서 아침순회강연때문에, 다시 어머니와 헤어지셔야하는 것을 놓고 '내일은 우리부부에게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어머니를 혼자, 순회보내실 때마다, 아버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많은 슬픔을 느끼시는 아버지이심을 느끼게 되었다.-사진3장





*5월8일- 어머님께서 파라구아이대회를 위해 깜보그란디에서 비행기를 타셔야했다. 나(김명순)는 깜뽀까지 가서 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해, 잘딩비행장에서 어머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나를 불드시고는, 배웅나온 세네선수들과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통역을 시키셨다. 떠나시는 어머님의 이별인사도 받지않으시고, 나도 못가게 하시고는, 아버님은 계속 선수들과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옆에서 통역을 하던 나는, 아버님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이별하기가 힘드셔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비행기를 타시는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못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이미 오늘 있을 어머니와의 슬픈 이별을 예고하셨기 때문이다. 이날 아버님은 판타날의 아메리카노호텔로 가심-사진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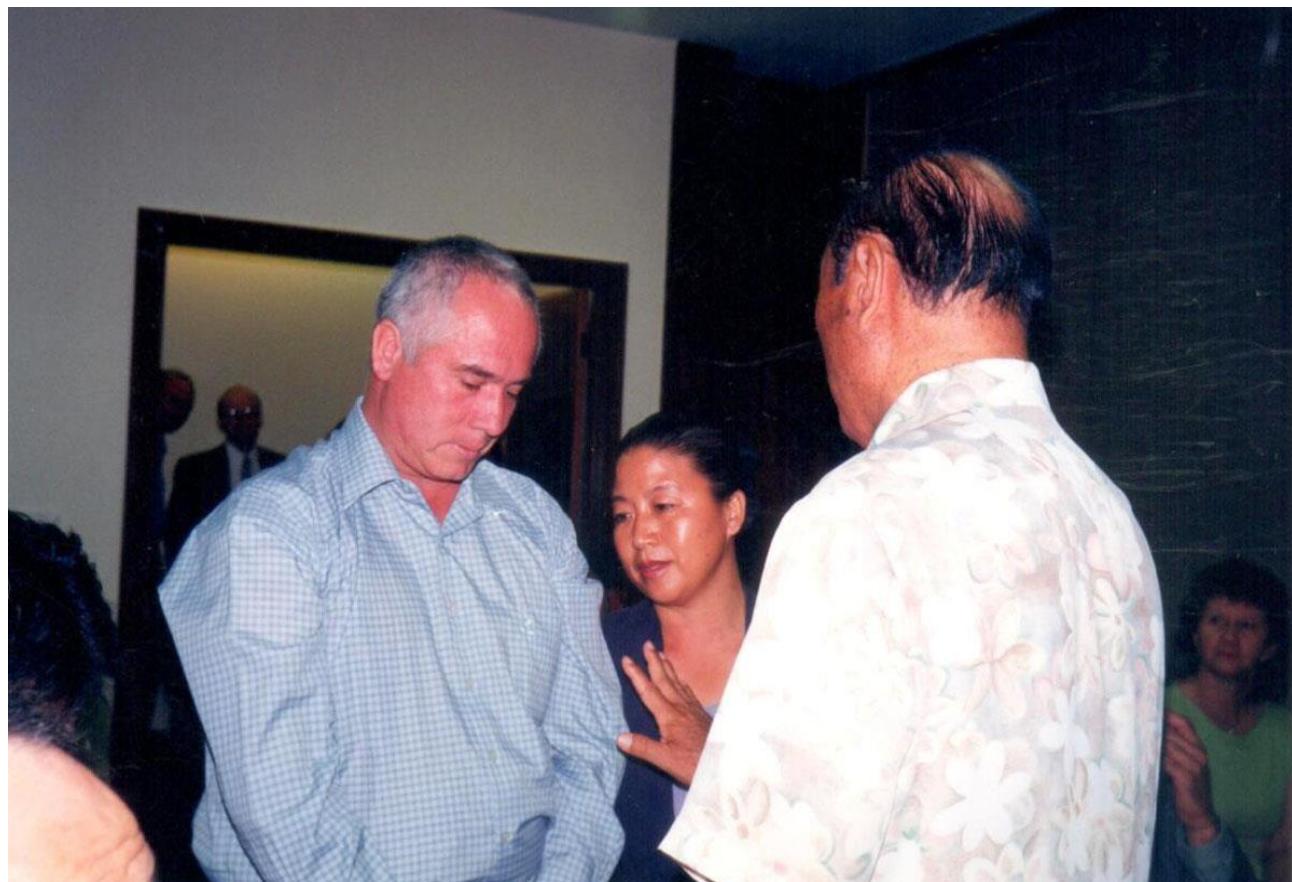


*5월16일- 15일까지 파라구아이, 우루구아이, 알젠틴순회 강연을 끝내신 어머님께서, 이날 깜보 그란디에 도착하시어 노보호텔에서 머무심. 판타날에서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동안, 행 길에서 '기다리는 마음'이란 제목의 노래까지 부르시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셨다. 헤어져 계신 동안의 두분의 사무치게 그리운 심정을 생각하고서, 우리는 하룻밤을 함께 지내시는 부모님을 위해 잘당의 분위기를 마련해드리고 싶었다. 잘당의 침구를 가져와 호텔방을 꾸몄다. 귀한 성 품을 식구를 통해 갖어오면서 마음졸이는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깜뽀그란디행사를 마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참부모님을 모시기가 하늘을 모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다' 라고 하셨다-사진1장



*5월17일- 어머님은 브라질리아 대회를 위해 떠나시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공항에서 배웅하신

뒤에, 다시 판타날로 가셨다. 이날 식구들과 말씀하실때, 두분이 떠나시기 전에, 아버님은 갑자기 우리 부부를 불러세우시고 남편 마으리시오 발지니를 협회장으로 재임명하시고, 시동변호사와 함께 잘딩프로젝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당부를 하셨다(이때, 만일 잘딩에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참부모님께 직접 영향이 미친다는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미 3개월전에, 상파울로의 한 식구가 살로브라에 와서, 남편에게 경배(브라질왕가의 영을 대표해)를 하면서 인사이동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었다. 아버님께서는 새로 임명하신 협회장남편에게 '내가 너의 승리를 응원하겠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다-사진2장





*5월19일- 어머님께서는, 전날18일에 상파울로집회를 마치시고, 19일, 이날은 리오에서 집회를 갖으신후 영국으로 떠나셨다. 새로 임명된 협회장으로 남편과 나(김명순)는 리오집회에 참석한 후 공항에서 어머님을 배웅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시기위해, 판타날에서 나오셔서, 상파울로 공항에서 계신 아버님을 만났다. 아버님께서는 새협회장이 된 남편에게 양복사입으라고 금일봉을 하사하시고 (이때 이미 리오에서 어머님께서 브라질리더들에게 금일봉을 하사하신 것을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주는 것이니, 네가 받아서 남편에게 주어라'라고 하셨다)많은 사랑의 말씀도 주셨다.

*7월9일- 원초성지에서 참부모님께서 총환원봉헌식의 기도를 올렸다.(이식은 6월17일의 해양환원식, 6월24일의 육지환원식 그리고 6월29일에 있었던 천주환원식 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봉헌하시는 식을 하신 것이다). 1965년 7월9일에 아버님께서 브라질의 성지를 리오데자네이로에 정해주셨기 때문에 브라질협회로써는 엄청난 의미의 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뿔뚜몰친을 거쳐 새벽2시에 배로 출발하여 우리일행은 원초성지에 5시경에 도착하였다. 위험한 일정이었지만 계속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도착해보니, 아버님은 5시 10분전에, 이미 일요일 경배식을 하신 뒤였고. 우리 일행이 도착했을 때 다시 총환원봉헌식의 특별기도를 하셨다. 이날 어머님의 배를 타는 은사를 받았다. 낚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였기에 고기들을 놓고 '잡혀주면 사진 찍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기도만 했다. 다행히 고기가 물려서 어머님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

고 잡힌 빠꾸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다.-사진4장





*7월10일 – 이날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버님배만 강에 나갔고, 어머님은 공관에서 정성드리
심-사진5장









*7월22일- 잘딩의 '세계평화 이상가정 교육센터' 개원 제2주년(입적수련 2주년) 기념때, 4천여 명의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방켓을 열었고, 참부모님 두분이 말씀을 하셨다. 아버님께서는 지역 주민들 식탁에 직접 가셔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셨다. 천복을 공유하는 참사랑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잘딩지역 33개시 책임자식구들과 회의도 주관하셨다.-사진6장









*8월18일- 아버님, 유엔에서 연설하심 (제목-국경철폐와 세계평화)

*9월26일- 제1차 사위기대 입적축복식(청평)-이때, 40일 잘당수련이 필수조건의 하나였음.

*11월29일- 참부모님, 깜보그란디와 잘당을 거쳐 살로브라에 도착하심.

*11월30일-참부모님께서 살로브라를 출발하여 판타날의 아메리카노호텔에 도착하시고, 다음날 파라구아이로 떠나심.

2001년도-

*1월13일- 청평의 천성왕림궁전에서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거행.

*1월27일- 유엔에서 축복식거행

*2월6일~15일 - 아버님께서는 원초성지에서 특별정성을 드리시느라 완전히 흑인같이 되셨다.(이때 국가 메시아들은 판타날 40일 수련을 받고 있었음). 이기간 동안, 하루는(그날은 내가 아버님배를 타는 은사를 받았다) 한 낚싯대로 한꺼번에 2마리의 빠꾸를 잡으시고 사진을 찍어주심. 돌아오는 길엔 배운전사 빠울로청년(이청년은 살로브라에서부터 아버님배를 운전하

였고, 일당받고 일하는 직원에서 시작하여, 아버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가정이 되었으며, 판타날섭리에 큰 공헌을 한, 이제는 식구로써, 자녀의 입장에서 참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이 수꾸리뱀을 잡아서 강가에서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국가메시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음.-사진2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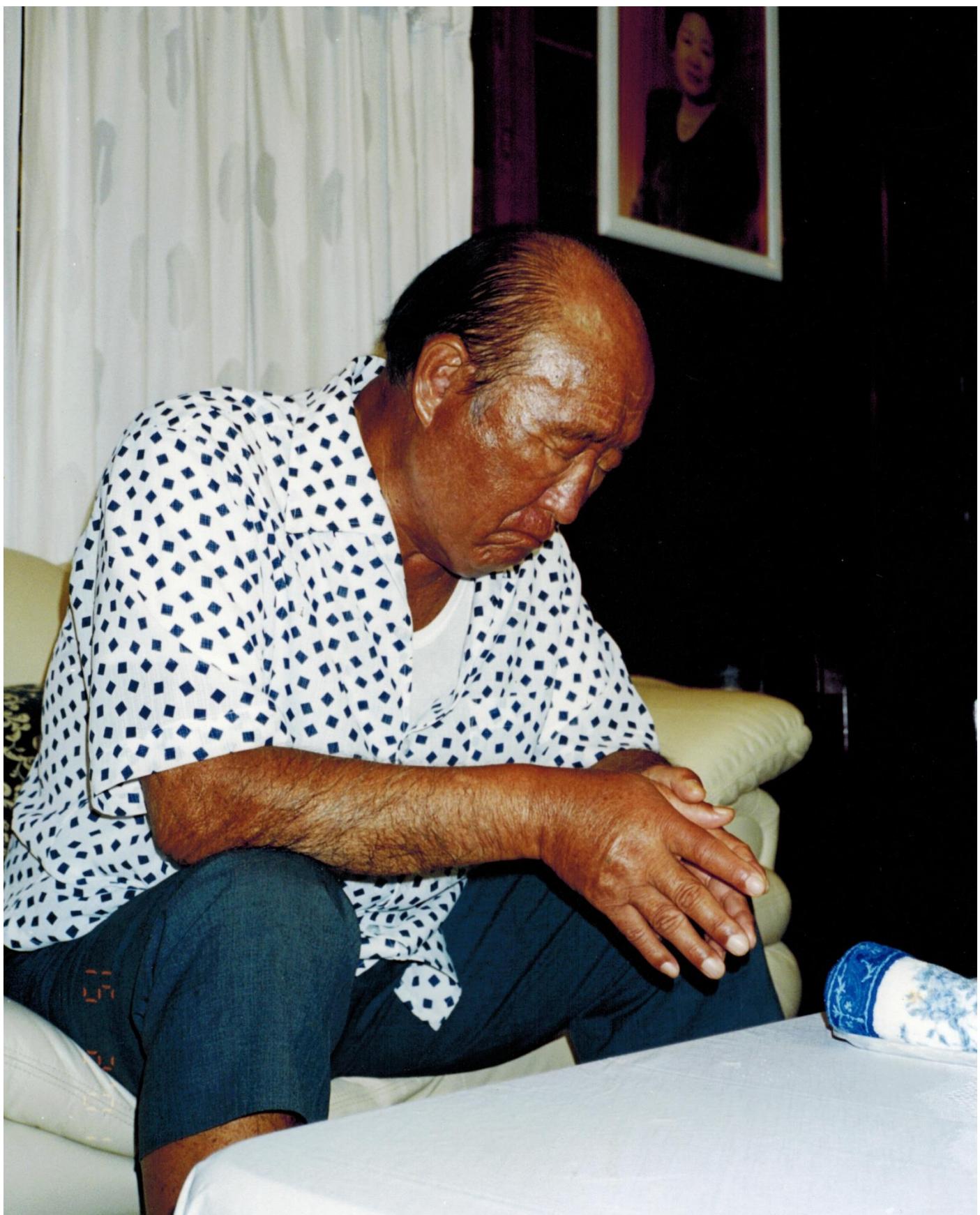
















*2월 16일- 아버님께서 살로브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나(김명순)의 가정에 대해 자상하게 물으시고, 시집보낸 딸을 놓고 걱정하시는 참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살로브라에 도착하셔서 훈독회와 함께, 잘당지역에 병원을 지어주시는 문제를 결정하셨다.- 사진4장







***8월-** 원초성지에서 떠나시는 기도를 공관에서 하셨는데, 차를 타시기 바로 전에 차문옆에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아버님께서 심각한 모습으로 다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판타날과 이별을 하신 후 다시는 못 가셨다.(마지막 이별의 특별기도를 그날 하신 것이 되었음).